

大巡思想의 道通眞境과 理想世界에 대한 現代的 理解

裴圭漢*

目次

I. 머리말	2. 도교적 이상세계
II. 東洋에서의 理想世界	3. 불교적 이상세계
1. 무릉도원(武陵桃源)	4. 유교적 이상세계
2. 삼신산(三神山)	5. 조선후기 신종교의 신세계 후천개벽
3. 동천복지(洞天福地)	6. 문학·문헌속의 이상세계
4. 선경(仙境)	IV. 大巡思想에서의 理想郷
5. 산해경(山海經)에 나타난 이상향	道通眞境과 그 現代的 理解
6. 대동사회(大同社會)	1. 大巡思想의 起源과 意義
III. 韓國에서의 理想世界	2. 道通眞境의 실현과정과 그 방법
1. 단군신화의 신시(神市)	3. 後天仙境으로서의 道通眞境과 그 모습

I. 머리말

본 연구는 인류가 존재한 이후로 항상 존재해 왔던 이상세계(理想世界)에 대한 관념, 의식, 사유체계, 사상, 이론, 종교적 진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서 대순사상에서의 궁극적 지향점인 도통진경에 대한 豫示的 세계

*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관을 고찰함으로써, 21세기를 눈 앞에 둔 인류의 고뇌와 세계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인류가 지향해야 될 바람직하고도 본원적인 이상세계는 어떤 것인가 이해하고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人類歷史를 돌이켜 보면 現存社會秩序가 個人本位이든 社會本位이든 그 모순이 나타날 때 이를 개량 내지 변혁하여 이상적인 사회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과 현존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사상적 대립이 있었다. 일찍이 正義와 理想에 눈뜬 哲學者 宗教家 社會思想家들은 강조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언제나 인간이 아무런 속박없이 自由롭게 그의 才能을 발휘하고 평등한 물질적 기초 위에서 서로의 사랑으로 결합되는 사회질서가 마련되기를 공통의 이상으로 삼아왔다.

이상세계에 대한 다양한 형상은 긴 역사의 시간을 거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일관된 의미지향과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인류의 이상세계에 대한 사유체계와 상상체계의 구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상세계에 대한 관념이나 사유체계는 오랜 역사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다양한 관념이나 사유체계를 특정한 기준이나 원칙을 통해서 분류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상향을 나타내는 단어나 신화, 설화, 종교교리, 문학작품, 사상, 이론 등을 기준이나 원칙없이 단순히 나열함으로써 살펴볼 수도 있다. 여기서는 이상세계에 대한 다양한 사유체계들을 특정한 기준에 준거하지 않고 동양, 한국, 대순사상의 도통진경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세계는 동양에서는 흔히 이상향이라는 말로도 대변되는데 이말은 “想像上の 理想的이며 완전한 사회. 유토피아(utopia) 또는 모어(More, Thomas)의 소설 《유토피아》(Utopia)속에 그려진 세계. 도원경(桃源境)”¹⁾을 말하며 주로 무릉도원, 삼신산, 동천복지, 낙토, 선경, 대동사회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서양에서는 흔히 유토피아라는 말로 이상세계를 대신하는데 이말은 16세

1) 국어대사전, 교육도서, 1988, p. 1650

기 영국의 휴머니스트인 토마스 모어(Thomas More)가 만들어낸 유토피아(Utopia)라는 어휘에서 비롯된다. 이말은 그것의 그리스어 語源을 고려해 볼 때 ‘이 세상에 없는 곳(Outopia : no-place)’ 과 ‘좋은 곳(Eutopia : good-place)’ 이라는 이중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모어가 비록 유토피아라는 어휘를 만들었지만 이러한 종류의 개념은 그가 살았던 16세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혹은 서양뿐 아니라 동양에서도 존재해 왔던 것이며 서양에서는 황금시대, 패러다이스, 천년왕국, 플라톤의 이상국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캄파넬라의 태양의 나라, 베이컨의 신아틸란티스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상세계에 대한 사유체계는 인간이 눈 앞의 현실에 불만을 품고 결핍된 것을 충족시키려 갈구하는데서 형성되기도 하는데, 아나톨 프랑스는 “유토피아는 모든 진보의 원리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상세계는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는 불안과 좌절의 시대일수록 더욱 절박하게 요구된다. 그 모습 또한 그 시대의 願望을 역설적으로 투영하면서 시대마다 바뀌어 왔다. 이상세계는 ‘더 좋은 세상’에 대한 꿈과 동경에서 출발하며, 그러한 이상이 실현 가능하다는 희망과 기대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향에 대한 인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상세계가 각시대의 사람들의 꿈과 동경, 희망과 기대를 담고 있다면,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인류의 미래세계에 대한 사유체계와 상상체계의 중요한 근거를 해명해 낼 수 있으며 오늘날 대순사상에서의 도통진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세계의 양상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그간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²⁾ 문학적 접근 외에도 역사·사회적 접근 등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

2) 金錫夏, 《한국문학의 낙원사상연구》(日新社, 1973)
 李鍾殷 《韓國詩歌上의 道敎思想 研究》(보성문화사, 1978)
 김윤식, 《황홀경의 사상》(홍성사, 1984)
 김종희, 《한국소설의 낙원의식 연구》(문학아카데미, 1990)
 金義淑, 〈燕巖 朴趾源의 유토피아 思想考〉, 《人文文學研究》 第20輯(강원대 인문학 연구소, 1983), pp. 22~39
 崔惠實, 〈이어도에 나타난 유토피아 思想考〉 《國語敎育》 제11집 (국어교육연구회, 1989), pp. 309~322

다.³⁾ 본 연구는 이러한 앞선 성과를 참고하여 논의를 전개 시켜보고자 한다. 원칙적으로는 공시적이든 통시적이든 역사상의 모든 이상세계의 특징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분류방식을 통해 이상세계에 대한 사유체계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기서는 이상세계를 지향하거나 이상세계를 말하거나 어떤 경우라도 관계없이 이상세계에 대한 사유라고 기존에 인정된 것을 중심으로 열거하는 정도로 만족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편의상 서양의 이상세계에 관한 사유체계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해 보았다.

II장에서는 동양에서의 이상세계의 모습으로서 무릉도원, 삼신산, 동천복지, 선경, 산해경속의 이상세계, 대동사회 등을 열거하였다.

III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이상세계의 양상을 단군신화에서의 신시(神市), 도교적 이상세계, 불교적 이상세계, 유교적 이상세계, 조선후기 신종교의 신세계 후천개벽, 한국문학·문헌속의 이상향 등으로 대별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IV장은 대순사상에서의 이상향 도통진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순사상의 기원과 의의, 도통진경의 실현과정과 방법, 후천선경으로서의 도통진경과 그 모습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蘇在英, 〈韓國文學에 나타난 유토피아의 공간성과 시간성〉, 《東洋學》 第23輯(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3, pp. 85~103

鄭珉, 〈遊仙文學의 서사구조와 도교적 상상력〉, 《韓國道敎의 道家思想》(아세아문화사, 1991), pp. 193~217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다수의 관련 논고가 있으나 뒷절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3) 金榮漢,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思想》(探求堂, 1988)

金榮漢, 〈理想社會와 유토피아〉, 《韓國史 市民講座》, 제10집 (일조각, 1978)

李成珪, 〈中國 大同思想의 歷史的 展開와 그 特徵〉, 《韓國史 市民講座》 제10집 (일조각, 1992)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민음사, 1994)

金湘坤, 〈理想郷 靑鶴洞에 대한 典據〉, 《漢文學》 2집 (전주대 한문학 연구회, 1984).

黃元九, 〈韓國에서의 유토피아의 한 試圖- 板尾洞 故事의 研究〉, 《東方學志》 32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2)

金恩石, 〈이어도 : 理想과 絶望의 世界〉, 《韓國學論集》 第125輯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7. 8) pp. 345~354

鄭爽鍾, 〈朝鮮後期 理想郷 追求傾向 과 三峰島〉,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下(창작과 비평사, 1990), pp. 51~95

沈慶昊, 〈茶山 微源隱士歌에 담긴 歸田園 意識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제15권 제3호 (통권48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pp. 101~115

II. 東洋에서의 理想世界

동양에서의 이상세계를 굳이 구분하자면 두가지로 나누어보고자 한다. 첫째는 공간적특성을 보여주는 이상세계와 둘째는 이념적특성을 위주리한 이상세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무릉도원(武陵桃源), 삼신산(三神山), 동천복지(洞天福地), 선경(仙境), 옥야(沃野), 낙토(樂土) 등이 있고 후자는 대동사회(大同社會)가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양자의 특성이 대체로 혼합되거나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편의상 나누어 보았다. 그럼 구체적으로 각 이상세계를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릉도원(武陵桃源)

무릉도원에 관한 원형은 老子의 《道德經》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나라는 작게 백성은 많지 않게 한다. 온갖 기물이 있어도 쓰지 않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삶을 아끼고 멀리 떠돌지 않게 한다. 비록 배와 수레가 있다 한들 타는 일이 없으며 갑옷과 무기가 있다 한들 사용할 일이 없다. 백성들로 하여금 결승문자를 다시 사용하게 하고 맛있게 먹고 멋있게 입고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지내도록 해 준다. 이웃 나라가 바라다 보이고 닭 울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만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는 일이 없다.⁴⁾

이것은 노자가 당시 기울어 가는 東周사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나온 사회관으로 ‘無爲而治’의 도리에 따라 인간 역사의 흐름이 거부된, 폐쇄된 시간과 공간 위에 건설된 이상세계이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소국과민(小國寡民)의 이상세계는 미래를 향한 진보보다는 과거의 이상사회로의 복귀를 암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체계는 동진(東晉)의 시인 도연명(陶淵明)에 이르러 문학적으로 표현된 이상세계의 한 전형인 무릉도원으로 자리잡게 된다.

동양의 이상세계의 한 전형으로 수 많은 사람에게 동경이 되어온 무릉도원은 도연명의 소설체산문<桃花源記>에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道德經》, 제80장

진나라 태원중에 어떤 무릉 사람이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시냇물을 따라 가다가 어디쯤 왔는지 길을 잊고 말았다. 갑자기 복숭아 꽃숲이 나타났는데 시냇물 양쪽으로 수백보의 평지에 다른 나무는 없이 싱그러운 풀들이 자라고 떨어지는 꽃잎이 이리저리 흩날렸다.

어부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 숲의 끝까지 가보고자 하였다. 숲이 시냇물 끝에서 다하자 문득 산이 하나 나타났다. 산에는 작은 굴이 있는데 흡사 빛이 통하는 듯 하였다. 다시 수십 보를 나아가자 앞이 탁 트이면서 밝아졌는데 널따란 토지에 집들이 우뚝하고 기름진 밭,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다가 뽕나무,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이리저리 길이 뻗어 있고 닭 울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가운데를 돌아다니며 농사일 하는 남녀들의 의복을 보니 모두 판 세상 삶 같은데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이었다. 그들은 어부를 보자 깜짝 놀랐다.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 어부가 사실대로 얘기하자 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련하고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마을에 이리저리한 사람이 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모두들 와서 궁금한 것을 물었다. 자신들에 대해 말하기를 선대에 진(秦)나라 때의 난리를 피해 처자를 거느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 외진 곳에 와서 다시는 나가지 않아 마침내 바깥 사람들과는 두절되었다고 하였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물었는데 한(漢)나라가 있었던 사실도 모르고 있으니 위나라, 진(晉)나라는 말할 것도 없었다. 어부가 일일이 그들에게 들은 바대로 말해 주자 모두들 놀라와 하였다. 나머지 사람들도 각자 어부를 집으로 데리고 가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다. 며칠을 머물다가 떠나가게 됐을 때 그곳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깥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곳을 나와 배를 타고 먼젓 번에 왔던 길을 따라 가면서 곳곳에다 표시를 해 두었다. 고을에 도착하자 태수를 뵈고 이 같은 사실을 얘기하니 태수가 곧 사람을 팔려 그를 좇아 가 보게 했는데 접때 표시해 뒀던 곳을 찾았으나 마침내 헛갈려서 길을 찾지 못하였다.

남양 땅의 유자기는 고상한 선비이다. 이 소식을 듣고 즐거이 가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잠시 후 병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는 더 이상 그곳으로 가는 길을 묻는 사람이 없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릉도원은 전란을 피해 들어간 소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이상세계로 외부와 격리되어 있고 먹고 사는 것이 어렵지 않는 자급자족의 농업생산세계로 빈부간의 차이나 계층간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평화롭고도 안정된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는 토지점병과 농민의 몰락으로 부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던 秦代의 상황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불만과 이상사회에 대한 염원이 반영된 세계이며 도연명이 살았던 晋, 宋교체기의 군벌들의 폭정에 따른 새세계

에 대한 동경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무릉도원의 세계는 노자의 東周, 秦代, 도연명의 진, 송고체기의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이상적인 세계인 것이다.

무릉도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특성을 요약해보면 소규모의 촌락공동체이며 외부세계와 격리된 공간으로서 부의 증대와 물질적 욕구의 충족보다는 절제와 검약을 통한 안정된 사회인 것이다.

2. 삼신산(三神山)

삼신산은 道家的 또는 道敎的속성을 반영한 낙원으로서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 라고 불리는 海島에 있다고 하는 세계이다. 그러나 삼신산과 유사한 이상향은 꼭 해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 해상, 천상 어디에든 존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곳에 사는 존재는 신선이나 天神들이기 때문이다.

《山海經》에 보면 삼신산과 유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서해의 남쪽, 유사의 언저리, 적수의 뒷편, 흑수의 앞쪽에 큰 산이 있는데 이름을 곤륜구라고 한다. 어떤 신이 있어 사람의 얼굴에 호랑이의 몸, 꼬리에 무늬가 있으며 모두 흰데 여기에 산다. 산 아래에는 약수연이 둘러싸고 있으면 그 바깥에는 염화산이 있어 물건을 던지면 곧 타버린다. 어떤 사람이 머리꾸미개를 찢고 호랑이 이빨에 표범의 꼬리를 하고 동굴에 사는데 이름을 서왕모라고 한다. 이산에는 온갖 것이 다 있다.⁵⁾

이곳은 신적인 존재인 서왕모가 사는 곳인 곤륜산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오를 수 없는 신들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계는 《莊子》에 이르면 좀더 진전된 모습으로 등장한다.

막고야산에 신인이 사는데 피부가 눈같이 희고 얇전하기가 처녀같다. 오곡을 먹지 않고 바람을 들이쉬고 이슬을 마신다. 구름을 타고 용을 부리며 사해의 바깥을 노니는데 그가 정신을 집중하면 만물이 병드는 일 없

5) 《山海經》, 大荒南經 참조

고 오곡이 익는다.⁶⁾

막고야산은 먹지 않고도 젊음을 간직한 신선이 사는 영역이다. 그리고 그 신선에 의해 만물이 생기가 넘치고 물질이 풍요로운 이상세계인 것이다. 이러한 신선적이고도 도교적인 낙원은 戰國시대 후기에 이르러 중국의 동북부 해안 일대에서 신선에 관한 다량의 설화가 유포되면서 전형화된 도교적 이상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삼신산이라는 곳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발해 한 가운데에 있는데 속세로부터 그리 멀지는 않다. 금방 다다랐다 생각하면 배가 바람에 불려가버린다. 언젠가 가본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신선들과 불사약이 모두 거기에 있고 모든 사물과 짐승들이 다 회고 황금과 은으로 궁궐을 지었다 한다. 이르기 전에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구름과 같은데 막상 도착해보면 삼신산은 도리어 물 아래에 있다. 배를 대려하면 바람이 문득 끝어가 버려 끝내 아무도 도달할 수 없다 한다.⁷⁾

《史記》에 보이는 삼신산에 대한 이 묘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불사약과 금과 은이 넘치는 세계로서 역시 신선이 사는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세계는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이며 신선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만이 사는 곳이다. 《포박자》에 의하면 신선에도 등급이 있는데 상, 중, 하로 나눈다고 한다. 상은 天仙이요, 중은 地仙이요, 하는 尸解仙인 것이다.⁸⁾ 이러한 신선세계는 도교의 천상세계에서 보면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즉 지상의 왕권체제와 같이 신선계도 옥왕상제를 정점으로 한 단계별 관료조직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신선이 살고 있는 삼신산에 관한 논의는 《列子》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발해의 동쪽, 몇 억만리인지를 모르는 곳에 큰 구렁이 있다. 실로 이 곳은 바다가 없는 골짜기로 밑바닥이 없기 때문에 귀허라고 부른다. 온 세계와 은하의 물이 모두 그 곳에 흘러들어가도 더하고 덜함이 없다. 그 가운데에 산이 다섯이 있다. 첫째를 대여라 하고, 둘째를 원교라 하고,

6) 《莊子,內篇》,逍遙遊 참조

7) 《史記》,封禪書 참조

8) 葛洪,《抱朴子,內篇》,論仙 참조

셋째를 방호라 하고, 넷째를 영주라 하고, 다섯째를 봉래라 한다. 그 산들의 높이와 둘레가 3만리요, 그 산꼭대기 평탄한 곳이 9천리요, 산과 산의 거리가 7만리 인데도 이웃으로 생각한다. 산 위의 건물은 금과 옥으로 지었고, 산 위의 짐승은 모두 순백색이다. 주간수⁹⁾가 어디에나 많이 자라고 있는데 꽃과 열매가 다 맛이 있으며, 이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선인 아니면 성인으로, 밤낮으로 날아 서로 왕래하는 사람들을 이루 셀 수 없다.¹⁰⁾

삼신산에 관한 묘사는 이 밖에도 있지만 대체로 신선과 관련한 세계로 도교적인 색채가 강한 이상세계라고 할 수 있다.

3. 동천복지(洞天福地)

동천복지는 명산 깊은 곳에 실재한다고 믿었던, 신선들이 사는 별천지를 가리켰으나 일반적으로 속세와 격리된 산중의 살기 좋은 땅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교에서는 동천과 복지를 구분해서 말하는데, 동천은 계곡이나 동굴 내의 별천지를 말하고 복지는 재해가 미치지 않는 비옥한 땅을 의미한다.

唐代的 상청파의 天師 사마승정(司馬承禎)이 지은 《天地宮府圖》에서는 도교의 성지를 10대동천, 36소동천, 72복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곳은 모두 명산에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대동천은上天이 직접 파견한 신선이 다스리는 곳, 소동천은 지상의 높은 신선이 다스리는 곳, 복지는 상제가 真人에게 명하여 다스리도록 한 곳이라 한다.¹¹⁾

동천복지설은 대체로 당대에 이르러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보다 훨씬 이전인 東晉시기의 도사 갈홍의 《포박자,내편》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다.

《선경》을 상고하건대 명상을 하면서 불사약을 합성하기에 좋은 곳으로는 화산, 태산, 괘산...괄창산 등이 있는데 이들 산에는 모두 올바른 신이 살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지선이 있기도 하다. 산 위에는 모두 지초가

9) 珠玕樹는 《산해경》에 등장하는 神木을 말한다

10) 《列子》, 湯問 참조

11) 동천복지에 관한 내용은 三浦國雄, 《洞天福地小論》, '東方宗教', 1983, No. 61 참조

나고 큰 전쟁과 난리를 피할 수 있어서 불사약을 만들기에 좋은 것 만
이 아니다. 만일 도를 추구하는 자가 이러한 산에 들면 산신이 반드시
도와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불사약은 꼭 이루어 질 것이다.¹²⁾

동천복지의 사유체계는 도교라고 하는 종교적 목적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상제가 보낸 仙官에 의해 다스려지는 지역내지는 불로초가 있고 불사약을
만들 수 있는 땅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 동천복지가 지상에
존재하는 神國이며 단절된 上天과의 연결을 꾀해주는 명산대천의 종교적 장
소임을 말해준다.

4. 선경(仙境)

선경이라는 말은 동천복지와 의미상 유사하나 보다 광의적으로 사용되는
이상세계이다. 이 말은 보편적으로 신선이 사는 세계를 뜻하지만 현실적으
로는 신선이 살만한 좋은 곳, 속세를 떠난 좋은 곳, 이상적이고도 완전한 세
계 등의 의미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선경에는 앞의 동천복지와 마찬가지로 신선과 선녀가 살고, 불사약이 있
으며, 각종의 기화요초와 학, 사슴같은 仙獸가 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5. 산해경(山海經)에 나타난 이상향

《산해경》은 동양 最古의 신화서로서 여기에 등장하는 곳은 태초의 이상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데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질민국이 있다. 순임금이 무음을 낳자 (그가) 질에 내려와 살았는데 이
를 무질민이라고 한다. 무질민은 성이 반씨로 곡식을 먹고 사는데 길쌈
도 않고 베를 짜지 않아도 옷을 해 입으며, 파종도 않고 추수를 하지 않
아도 밥을 먹는다. 이곳에는 노래하고 춤추는 새가 있는데, 난새가 절로
노래 부르고 봉새가 절로 춤춘다. 여기는 온갖 짐승이 서로 무리지어 살
며, 온갖 곡식이 쌓여 있는 곳이다.¹³⁾

12) 葛洪, 《抱朴子, 內篇》, '金丹' 참조

13) 《山海經》 '大荒南經' 참조

동양 고대 사회의 전설적인 성군으로 태평성대를 이루어 냈다는 순임금의 후손이 사는 질민국도 하나의 이상세계이다. 여기서는 인간의 노동과 고통이 없어도 의식주가 해결이 되며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특별히 聖君의 시대에 출현한다고 하는 난새나 봉새와 같은 상서로운 존재와 더불어 사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양에서 말하는 파라다이스 즉 지상낙원과 같은 세계이다.

서남쪽 흑수의 사이에 도광야가 있는데 후직을 여기에 장사 지냈다. 여기에는 맛있는 콩, 벼, 기장, 피 등이 있고 온갖 곡식이 절로 자라며 겨울과 여름에도 씨를 뿌린다. 난새가 절로 노래 부르고 봉새가 절로 춤춘다. 영수가 열매 맺고 꽃이 피며 (온갖) 초목이 모여 자라는 곳이다. 여기에는 온갖 짐승이 있어 서로 무리지어 산다. 이곳의 풀들은 겨울과 여름에도 죽지 않는다.¹⁴⁾

후직은 周왕조의 시조로서 농업을 진흥시킨 생산의 제왕이다. 여기서 도광야라는 곳은 후직의 장지로 곧 곡물이 풍족한 비옥한 땅임을 알 수가 있다. 곡물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후직은 불사의 존재로 후직의 땅에서는 겨울이 되어도 곡물이 자라고, 그 열매와 꽃을 먹으면 불로장생한다는 靈壽가 자란다.

다음은 불사의 세계로서 천년 묵은 호박(琥珀)인 유옥(遺玉), 자웅동체의 짐승인 삼추(三騮), 신령스러운 배나무인 감화(甘華)가 있는, 그리고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줄지 않는 다는 뜻인 시육(視肉)이 있다는 이상세계로 이 곳은 앞서 살펴본 세계와 역시 마찬가지로 무한한 생산력이 보장된 사회이다.

남류산이 있는데 여기는 유옥, 푸른말, 삼추, 시육, 감화가 있고 온갖 곡식이 나는 곳이다.¹⁵⁾

산해경에는 이밖에도 옥야(沃野), 평구(平丘), 차구(差丘), 개유산(蓋有山) 등의 낙원이 등장하는데 대체로 산해경 속의 세계는 불사의 관념, 풍요로운 생산물, 즐거운 삶 등이 보장되는 세계라 할 수 있다.

14) 앞의 책, '海內經' 참조

15) 앞의 책, '大荒南經' 참조

6. 대동사회(大同社會)

대동사회는 앞에서 논의했던 특정한 장소로서의 이상향 이라기 보다는 특정한 이념을 바탕으로 구성된 세계이다. 즉 유교적인 상상력과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탄생된 이상세계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의 원형은 孔子가 말한 《禮記》의 내용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평해진다. 똑똑한 사람을 뽑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신의를 논하고 화목을 닦게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제 부모만을 부모 대접하지 않고 제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아 늙은이는 여생을 마칠 수 있고 장년들은 일할 수 있고 어린애는 길러지며 과부, 홀아비, 병든 자들이 부양받게 된다. 남자는 짝이, 여자는 시집갈 곳이 모두 있게 된다. 재물이 땅에 버려지는 것을 그대로 두진 않지만 꼭 자기 것으로 하지도 않는다. 놀고 먹는 것을 싫어하지만 꼭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 만은 아니다. 따라서 남을 해치려는 피가 날 리 없고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바깥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세상을 대동이라 한다.¹⁶⁾

공자가 제시한 이러한 이상사회는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한 세계로의 회귀나 귀의를 역설한 신화적인 또는 도교적인 이상사회론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다. 즉 인간이 창조한 세계질서를 긍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동사회가 서양의 유토피아처럼 과학의 발달, 역사발전에 따른 산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동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는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성대이므로 일면 복고적인 이상세계론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도교적 이상사회와는 달리 대동사회는 인간이 추구한 조화로운 세계라는 점에서 구분이 된다 하겠다. 이러한 입장은 적어도 인간의 자연상태가 반드시 악은 아닐지라도 인간의 노력에 의해 다듬어져야 할 대상이고 따라서 이 세련화가 성공적일수록 인간은 이상적인 생존을 영위할 수 있다는 관념을 시사한다.¹⁷⁾ 그러므로 대동사회는 주로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이상적 세계인 것이다. 다시말해 대동사회에서는 자연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재화, 제도 등

16) 《禮記》, ‘禮運’. 위의 내용은 실제로는 漢代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17) 李成珪, ‘中國大同社會의 歷史的展開와 그 特徵’, p. 206

모든 것이 오로지 인간의 노력과 도야에 의해 바람직하게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동사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비교적 강한 현실, 사회개혁적 의지에 있다. 공자의 대동사회에의 열망은 대도가 시행되지 않아 사리사욕이 추구되고 법치에 의해 유지되는 小康 사회에 대한 극복의 의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대동사회의 이러한 이념적 특징들은 후대에 이르러 농민반란, 종교운동, 사회운동, 정치운동 등을 통하여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글로서 표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後漢 시기 張道陵이 蜀 땅에 건설했던 五斗米道 왕국은 원시도교 경전인 《太平經》에서 추구하는 태평세계와 더불어 도교 속에 투영된 대동사회의 이상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또한 明代 陽明學者 何心隱(1517-1579)이 염원하고 추구한 이상세계인 聚和堂과 《水滸傳》에서 나타나는 치외법권 지대인 梁山泊 등은 대동사회의 이념이 내포된 아류의 이상세계인 것이다. 그러나 대동사회의 근본적인 이념을 확대 발전시켜 이상세계에 대한 의지를 꽃피운 것은 淸末의 巨儒이자 개혁가인 康有爲(1858-1927)의 《大同書》이다.

대동세계에는 단지 공공의 집과 여관이 있을 뿐, 개인의 집은 없다. 그러므로 함께 즐지어 앉자 식사를 한다. 날마다 큰 연회가 열리며, 또한 기계가 발달하여 개인방으로 음식을 들여보내 먹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긴다.대동세에는 의복에 구별이 없다. 귀천이 없고 남녀를 구별짓지 않으며 단지 귀중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모두 같은 옷을 입되, 단지 어진 자와 지혜로운 자만은 구별을 두어서 발전을 장려할 뿐이다.기계가 발달함에 따라 사람의 지혜도 날로 발전하여 인류에게는 막대한 이익이 있게 된다. 기계가 정밀해지면 인간의 행동과 일을 조사하고 살필 수 있게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게을러지거나 도둑질 하거나 속이거나 하는 등의 일을 못하게 할 수 있다.대동세에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바가 없어서 편안함과 즐거움이 극에 달해 오직 오래 살기만을 생각한다.오직 사람은 公政府의 교육과 양육을 20년동안 받는데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 20년간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난세의 사람들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마침내 사람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신선학이 융성한 다음에는 불교가 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빛과 전기를 타고 기를 조절해서 지구를 벗어나 다른 별로 가게도 된다. 이것은 대동세의

극치이며 인류의 지혜가 또 한번 새로워지는 때이다.¹⁸⁾

《大同書》에서 설계된 이상세계는 ‘據亂’의 현실에서 ‘昇平世’의 小康의 상태를 지나 ‘太平世’인 大同의 세계에 이른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단계적인 발전을 거쳐 태평세인 대동세계가 되면 지구는 하나의 단일정부로 결속되면서 남녀, 부부, 부자, 모녀, 노소, 빈부, 귀천, 강약, 등의 모든 상대적인 구별과 차등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당시 중국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신분질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간의 경쟁과 다툼도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 대동서는 강유위의 사상적 근간이었던 公羊學이란 유학의 진보적인 한 계통의 발전론적인 진보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추론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19세기 말기의 중국에서의 구미세력의 침략과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던 수구세력에 대한 대항의 입장에서 염원된 일종의 희망적인 중국미래기이기도 했다.

강유위가 그려낸 대동사회는 과거 《예기》에서의 대동세계보다도 상당히 이념적으로도 확대되어있고 다양하다. 公政府에 의해 통치되는 평등한 사회, 기계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궁극적으로 인간이 불로 불사하는 사회, 인간의 지혜가 밝혀져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사회, 이러한 사회는 기존의 동서양의 역사속에서 꿈꾸어 왔던 이상사회중 이념적으로는 완벽한 형태의 것이라 볼 수 있다. 강유위의 대동사회의 이념은 기본적으로는 《예기》의 유교적 취지로부터 출발하여 도교의 생명사상, 불교의 해탈사상까지 망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 서양의 정치사상인 민주주의, 과학사상에 입각한 서양 유토피아의 이념까지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강유위의 이상사회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처럼 과학적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조지 오웰의 《1984》나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울한 결과로 전락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빛과 전기를 타고 기를 조절하여 지구를 벗어나 다른 별로 가 계도 된다.”는 말에서 보듯이 궁극적으로는 물질과 정신의 대립을 초월한 새로운 세계에로의 접근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과학에의 신뢰와 더

18) 康有爲, 《大同書》(서울: 민음사, 1991), 李星愛 옮김, pp. 609-616

불어 동양의 전통적인 정신가치가 포기되지 않고 양자의 발전적 통합 위에 구축된 대동사회는 새로운 세계이며 동서양 의식이 결합된 새로운 차원의 이상세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Ⅲ. 韓國에서의 理想世界

우리 나라에서도 매우 다양한 이상세계에 대한 관념, 사유체계, 문헌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이상세계에 대한 형상들은 앞에서 살펴본 동양의 이상세계 유형과는 다른 복합적 양상을 띤 것도 많고, 유사한 것도 있다. 또한 각 시대별로 나타나는 이상세계의 양상 또한 그 시대의 상황이나 시대정신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선상에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다.¹⁹⁾

그래서 여기서는 이상세계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체계를 신화적, 종교적, 문학적, 기타문헌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檀君神話의 神市

단군신화에 나타나는 ‘神市’는 고대 한국인이 꿈꾸었던 최초의 이상세계로 상정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꿈꾸는 데 그치지 않고 ‘弘益人間’의 구체적 의지에 의해 지상 위에 건설된 신의 세계를 담은 이상세계라는 데서 그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단군신화에서 나타나는 세계는 天上의 하늘을 의식하기는 하였지만 地上의 하늘, 인간과 공존하는 세계를 구체화 하게 되었고 더우기 하늘의 신이 아니라 인간화된 신이 다스리는 신인조화의 이상세계였던 것이다.

그리고 단군신화의 세계는 현세의식을 위주로 존재하는 세계였다. 이러한 의식은 흥익인간, 재세이화의 이념으로 표방되기도 하였지만 한국 고대의 神市는 서구종교 특히 기독교에서 현세를 생각하는 것처럼 추방당하고 내던

19) 여기에 대한 것은 한국도교사상연구회, <韓國文學에 나타난 유토피아 意識研究>, 《道敎의 韓國的 變容》(아세아문화사, 1987), pp. 398~487 참조할 것

저진 고난과 핍박이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동화하면서 조화와 질서의 무한한 혜택 속에서 살아가는 크고 한없이 아름답고 찬란한 광명의 세계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상에 하강한 신인 檀君도 인간세계에 직접 참여한 현실적인 인간화된 신으로 나타나며 원죄설에 바탕을 두고 현세에서 영원한 죄인의 구세주로서의 신으로 의식되어지는 서양의 신과는 확연히 다르다 하겠다.

태백산 아래 神檀樹를 중심으로 열린 神市에서 桓雄은 농사와 생명과 질병 및 형벌과 선악을 주재하며 인간살이의 360여가지 일을 주관하며 정치와 교화를 베풀었다. 말하자면 이 神市는 원시형태의 대동사회의 형상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될 것이다.

신화의 시대는 주객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모태의 세계이다. 인간과 자연, 하늘과 땅은 하나의 질서로 포괄되며, 둘 사이에는 거리가 없고 따라서 갈등도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태초의 세계를 그리워 한다. 어머니의 자궁은 자아와 세계가 합일된 공간이듯이, 태초로 상징되는 신시의 시대는 신과 인간과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이상세계인 것이다.

2. 道教的 理想世界

신화 시대 이후 고대 한국에 있어 이상세계의 모습은 주로 道教的 상상력에 기초하여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道教는 과거 역사의 표면에서 큰 힘을 발휘한 적은 없지만 한국 문화의 저변에서 유교나 불교에 못지 않은 영향력을 지녀왔다. 4·5세기 불교가 아직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전의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고구려가 도교의 나라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학을 타고 피리를 부는 신선, 용과 봉황을 타고 하늘을 나는 仙人·三足鳥·神樹 등 도교적 상징들로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고구려인의 이상세계와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세계는 초기 고구려인들이 꿈꾸었던 세계에 대한 상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고구려 벽화 가운데 특히 安岳 1號墳과 舞踊塚 벽화 등에 보이는 人面鳥나 5회분 4호묘 玄室 천장 고임에 보이는 대장간 일을 하는 治匠神과 수레바퀴를 만드는 製輪神 등은 그 원형이 모두 《山海經》에 등장하고 있는 것

들이어서 흥미롭다.

잘 알려진 대로 《山海經》은 발해만 연안의 東夷系 신화를 위주로 편성된 巫書이며, Max Kaltenmark의 지적대로 《山海經》에서의 羽民·羽人·鳥人 등과 관련된 일련의 신화적 내용들은 고구려를 포함한 고대 동이문화의 중요한 징표인 神鳥 토템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화는 나아가 비상하는 존재인 神仙-道敎文化로 발전하여 중국의 유력한 주변문화를 이룩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고구려 벽화에 반영되어 있는 《山海經》적인 제재는 중원 문화의 유입이 아니라 고구려 토착문화와 상관된 주변문화적 요소로 오히려 이 보다 앞선 시기에 중원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²⁰⁾ 고구려 벽화공간이 인면조를 비롯하여 秦樂·騎龍의 신선(5회분 5號), 乘鶴의 신선(三室塚 등)등과 天上玉女(德興理 등), 仙女(眞坡理 1號 등) 등 불사의 존재로 현란하게 장식되어 있는 것은 당시 고구려인 들의 토착문화적 요소의 반영인 동시에 이들이 꿈꾸었던 상상력의 세계를 매우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구려 고분의 내부는 현실을 나타낸 벽면과 내세 혹은 이상 세계를 표현한 천상이 어우러져 일종의 소우주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벽화의 세계는 현세에서의 삶이 내세에도 지속된다고 믿은 繼世사상을 반영하고 있다.²¹⁾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신화적 상상으로 가득한 벽화의 세계는 의사유토피아의 한 형태라고 할 것이다.

이밖에 3년 전 출토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여 능산리 고분의 용봉향로(龍鳳香爐)나 신라의 天馬塚에서 도교적 기호들과 만날 수 있고, 흔히 三神山을 형성화 한 것으로 알려진 백제의 산경수전 등 수다한 유물 또한 고대 3국 시기부터 도교적 상상체계가 한국문화의 토양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 유물에 형상화되어 있는 도교적 상징들은 고대 한국인들이 꿈꾸었던 이상세계의 모습을 어렵듯이나마 드러내 보여준다.

20) 鄭在書, < 高句麗 壁畫의 神話的 題材에 對한 새로운 인식 > (제3회 이화여대 인문과학대학 교수학술제 발표 논문요지집, 1995.5. 12), pp. 23~30참조

21) 安輝濬, '고구려벽화1', <세계일보>, 1995년 3월 25일자

3. 佛敎의 理想世界

삼국시대 초기의 도교적 상징들은 불교의 전래와 함께 점차 쇠퇴해 가고, 이상세계에 대한 관념 또한 불교적 성격이 강화되어 나타난다. 彌陀淨土와 彌勒淨土신앙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상층에서는 개인적으로 成佛하여 바로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西方의 彌陀淨土에 대한 지향이 두드러졌던 반면, 이 지상에 이상세계가 건설될 것을 믿는 彌勒淨土 신앙은 계층을 불문하고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큰 영향을 끼쳤다. 이는 단순히 관념적 지향에 그치지 않고, 현실사회를 개혁하려는 양상으로까지 확장되었다.²²⁾

이른바 彌勒理想世界는 他界가 아닌 먼 훗날 언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세워진다고 믿는 淨土이다.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을 轉輪聖王(轉輪聖王)이 출현하여 다스림으로써 이 彌勒淨土는 지상 위에 이룩된다.

彌勒淨土 즉 龍華世界는 “땅은 평탄하여 거울과 같고, 자연은 맑은 대지 그대로 온갖 아름다운 꽃들의 미소와 새들의 노래로 가득하며, 갖가지 곡물과 향기로운 과일을 풍부히 제공함으로써 생산의 자급자족을 가능하게 하여 인간의 노동이 필요치 않게 한다. 기후는 화창하며, 사계절이 순조로울 뿐 아니라 기근도 없다. 사회는 평안하여 그 어떤 적이나 도적도 없으며, 전쟁과 재난, 그리고 질병의 고통이 없다. 이러한 곳에서 사람들은 티끌만큼의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도 없이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공경하고 물질적인 차별 없이 서로를 모두 한 가족처럼 아낀다.²³⁾ 이렇듯 彌勒淨土는 서구의 황금시대나 동양의 小國寡民의 大同社會가 지닌 본질적 가치들을 거의 다 갖추고 있는 세계이다.

한편으로 彌勒信仰은 혼란한 末法社會를 배경으로 하여 이상향의 건설을 지향하므로 자연히 현실 개혁 사상과 연관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미륵신앙은 중생의 국토가 바로 淨土라는 전제 아래 기독교의 천년 왕국 신앙처럼 ‘지금 이곳’에서 淨土를 이룩하려는 매우 현세적인 신앙이다. 다만 부정적

22) 金杜珍, <弓裔의 彌勒世界>, 《韓國史 市民講座》 제10집 (일조각), 1992), p. 19
참조

23)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민음사, 1994), p.419

가치가 범람하는 현실 사회가 淨土化 되려면 현실의 부조리한 요소들을 이상적 방향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로 이러한 개혁적 성향은 彌勒淨土로 상징되는 이상세계의 형상이 시대를 건너 뛰어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바탕이 된다.

실제로 彌勒淨土를 향한 열망은 세상이 어지럽고 민중들이 고통받던 시대에는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국의 혼란기와 통일 신라의 對唐 투쟁기, 나말여초의 혼란기, 고려의 무신란 시기, 몽고의 침입기, 여말의 내우외환기, 조선조 임병 양란 이후 당쟁 격화기, 신종교가 대두되던 조선후기 등의 시기에 미륵정도 신앙은 시대를 뛰어넘어 늘 한국의 민중들의 삶 속에 있었다.

특히 나말 여초의 혼란기에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자처하며 금관을 쓰고 方袍를 입었으며, 맏아들을 淸光菩薩 막내아들을 神光菩薩이라 하여 협시보살로 삼았고, 스스로 불경 20여 권을 만들고 彌勒觀心을 행한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렸다.²⁴⁾ 여기에는 특히 통치자가 민중들의 미륵신앙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권력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삼국정립기에 신라에서 화랑을 미륵의 화신이라 하여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거듭되는 전쟁에 고통받는 민중들의 마음을 결집하였던 것도 국가 이데올로기와 민중신앙이 결부된 좋은 예이다.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하던 고려 후기의 민가사회에도 미륵신앙은 상당히 성행하였다. 미륵불이 하생하여 교화하는 龍華會에 참여하여 미륵불에게 향을 공양할 수 있기를 발원하여 향목을 해변에 묻어두는 풍속이 행하여지고 있었음은 곧 미륵하생신앙의 유행을 말하여 준다. 이같은 미륵하생신앙은 고성 삼일포 매향비 및 사천 매향비 등의 유적에서도 잘 나타난다. 또 임병 양란 이후 숙종조에 미륵을 자처하며 殺主契를 조직하고, 서울을 탈취하여 새로운 이상국가를 세우려는 결사가 발각되어 당시 사회의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²⁵⁾ 또 조선말 수많은 신종교들이 미륵을 앞세워 교단을 확장할 수 있었는데, 이 또한 '새로운 세계의 약속'을 보증하는 미륵신앙이 얼마

24) 金杜珍, 앞 논문, p. 28

25) 자세한 경과는 정석중 《조선후기사회변동연구》(일조각, 1990)의 II장 <단종도의 사회 동향과 彌勒信仰>을 참고 할 것

나 기층에 뿌리내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²⁶⁾

4. 儒敎的 理想世界

고려 초기 유교적 이상국가의 모델이 治國의 비전으로 제시된 예는 崔承老의 時務十條에 나타난다. 崔承老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하에서 유교적인 도덕정치가 행해지는 귀족 국가를 꿈꾸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바람직한 국가체제의 모습과 이상적 군주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교적 이상국가의 모델은 조선 중종조 趙光祖에 의해 道德國家의 이상으로 보다 더 구체화 되었다. 趙光祖는 하늘의 도리를 따르는 정치, 聖賢들의 가르침을 지키는 실천을 통해 三代의 이상정치를 오늘에 구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²⁷⁾ 조광조는 '隆古之治'라 하여 삼대의 정치를 현세에 재현시키려는 복고주의적인 이상을 품고 있었다. 그렇다고 이러한 이상이 고대 정치의 회복이라는 단순한 복고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고대의 정치를 이상형으로 설정하고 이를 변통하여 조선조의 정치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즉 유교적 이상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관이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왕은 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본의 이념'을 제시했다.²⁸⁾

조광조의 이러한 생각은 이후 사림들의 정치의식에 대단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李珥는 그러한 이념을 향촌의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켰다. 李珥의 향약 운동은 당시 사회적 공동관심사를 지역사회 주민상호간의 협력으로써 해결해 나가면서 미풍양속을 진작하고 나아가 도의문화의 작흥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주민계도를 통하여 입교명륜의 도를 확립함으로써 화평하고 질서 있는 이상사회의 건설을 꿈꾸었다는 데에 이 운동의 의의가 있다. 그는 향

26) 한국사회에서 전개된 미륵신앙 및 운동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미륵사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삼룡, 《韓國彌勒信仰의 研究》(동화출판공사, 1983), 고은, <미륵신앙과 민중>, 《문학과 지성》(문학과 지성사, 1979 봄호)와 주장현, 《마을로 간 미륵》(대원정사, 1995)등을 참조

27) 구체적인 내용은 李基白, <崔承老의 儒敎的 理想國家>, <韓國史 市民講座> 제10집(일조각, 1992), pp.37~48 과 鄭斗熙, <趙光祖의 道德 國家의 理想>, 같은 책, pp. 49~71을 참조할 것

28) 조광조의 이상국가론의 정치의식에 대해서는 김왕수, <이상사회에 관한 한국인의 전통적 관념>, <인문과학>72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94)를 참조

약운동을 통하여 인간성의 회복과 사회윤리의 부흥 및 사회정화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부조리했던 당시의 혼란상태 속에서 새로운 이상사회의 꿈을 실현하려는 의도가 크게 부가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²⁹⁾

조광조나 이이가 건설하려고 한 이상사회는 유교의 이념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三綱에 근거한 유교의 질서의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액면 그대로 이상세계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들이 그리고 있는 유교적 이상사회는 德治主義에 입각한 복고적 이상을 바탕으로 깔고 있으며, “모두 기성질서의 복고적 혁폐에 머물고, 현실과 밀접되어 있어서 대담한 상상의 날개를 편 假構力이 빈약하며, 아울러 초월의 집념도 내세적 종교성과 결부되지 아니한 점 등 불철저성”³⁰⁾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유교적 이상사회의 건설은 조선 후기 茶山 丁若鏞을 비롯한 실학자들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상사회 추구의 한 흐름을 형성해 왔다. 특히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이상사회의 형상은 時務策的·經世的 덕치사회로서 관료에서 소외된 독서인 선비들이 리더가 되어 당시 부랑화한 농민대중의 귀농정착을 강조하는 서류적이상향의 형태를 지니기도 하나,³¹⁾ 본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三代의 이상을 회복한다는 유가적 이상사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5. 朝鮮後期 新宗教의 新世界 後天開闢

이상향에 대한 추구하고 관련하여 독특하고도 주목되는 것은 조선 후기의 어지러운 사회상을 바탕으로 발생했던 기층민의 봉기와 그들이 추구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다. 전통사회에서 일어났던 기층민의 봉기는 대부분 앞서 본 미륵신앙의 연장 위에서 彌勒淨土의 구현을 꿈꾸거나, 속종조 여환의 난이나 흥경래의 란에서 보듯 ‘진인의 출현에 의한 새 세계의 건설’이라는 이상세계의 약속을 기저로 하면서 출발하고 있다.³²⁾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운동을 가장 선명하게, 또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29) 김석하, <한국문학의 낙원사상연구> (일신사, 1973), pp. 213~216을 참조할 것

30) 신일철, <崔濟愚의 後天開闢의 理想社會像>, 앞 같은 책, p.89 참조

31) 신일철, 같은 글, p. 90

32) 자세한 내용은 정석종, 앞의 책, pp. 22~78을 참조할 것

경우는, 조선의 붕괴와 새 세계의 대한 종교적 대안으로 등장한 동학 및 신종교의 後天開闢說이다.

後天開闢說은 서구의 경우에 비추면 ‘천년왕국설’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띤다.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칼 만하임은 “종래에는 막연히 떠도는 피안을 향한 희망에 불과하던 것이 갑자기 현세적이 되어 ‘여기에서 지금’ 실현되는 것으로서 체험되고 특별한 무게를 갖고 사회적인 행동이 되어 넘쳐 나왔다. 열광적인 에네르거나 황홀의 체험으로 절대적인 현존의 대기이다. 농민전쟁 당시 사람들을 존재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몰아세운 것은 ‘이념’이 아니었다. 훨씬 더 어두운 심층심리가 여기에서 폭발을 일으킨 것.”³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요점은 운동의 성격이 ‘미래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아니라 ‘지금 실현의 황홀한 체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순간적으로 대단한 힘을 발휘하여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려 한다. 의식의 근저에는 열정적인 신앙이 자리잡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사회와 괴리되어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조선조말 수많은 민중은 마음을 사로잡았던 後天開闢思想은 선천세계와 후천세계로 時運을 나누고, 선천세계는 운이 다해서 닫히는 반면, 후천세계는 새롭게 열릴 것이라는 사상이 기저를 이룬다. 따라서 당대의 현세는 교체되고 붕괴되어야 할 세계일 수밖에 없다. 또 이론적으로는 음양오행사상의 영향도 입고 있다.

즉 天地丕卦가 地天泰卦로 바뀐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天地丕의 괘는 천지의 운수가 막혀 있는 괘이기 때문에 군자가 물러가고 소인이 득세하는 때이며, 소극적이고 침체된 분위기이고 사람의 正道가 막혀있음을 나타낸다. 地天泰의 시대로 접어들면 하늘과 땅이 교체되어 서로 통하게 된다. 乾元의 양기가 강하하여 안에 머무르고, 坤元의 음기가 상승하여 외지에 머무르게 되어 음양의 두 기운이 화합하여 만물을 생성, 번창하게 하는 것이다.

증산성사(姜一淳)³⁴⁾는 원한으로 인하여 상극이 지배하는 시대를 先天時代

33) 칼 만하임 / 황성모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삼성출판사, 1983), p. 468

34) 증산성사(姜一淳)는 1871년 9월 19일(음력)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에서 강세하여 1909년 6월 24일 화천할 때까지 후천세계를 여는 천지공사를 행하고

라 보고, 後天時代는 그 원한이 풀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상생하는 시대임을 설파하였다. 즉, 상제가 직접 구천으로부터 내려와 인간세계와 신명세계를 두루 살피고(大巡) 난 다음, 모든 원한과 그 여건들을 없애버림으로써 신명들과 인간들 사이에 생겨난 相克相爭의 요소를 해소하여 후천시대의 이상세계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이른바 天地公事라고 한다. 천지공사로서 세워지게 되는 후천세계는 解冤相生의 세계이고, 사람이 으뜸으로 되는 人尊世界로서 신명들은 이를 위하여 존재한다.

후천개벽사상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첫째, 이미 현재 후천개벽의 시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선천시대에 벌어졌던 모든 재난과 고통을 해소하고 革世할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둘째, 후천시대에는 새로운 상생의 세계가 전개되어 온 세상이 한 집안 식구처럼 지낼 수 있게 된다는 희망을 부여한다. 셋째, 신명들이나 다른 인간들에게 원한을 품게 하는 행위를 삼가게 하고 스스로 속이지 않는 無自欺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 등이다.

후천개벽사상은 다시 말해 하늘의 상제가 직접 인간세상에 내려와 현재의 인류가 처한 세계적 갈등구조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천·지·인 삼계에 대한 정확한 비판과 진단을 통해 천지공사라는 처방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간이 고대로부터 추구하던 완벽한 이상세계가 도래를 약속하는 광구천하사상이다. 이에 대해 민중들은 폭발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이를 토대로 사회운동과 종교운동으로까지 추진되었으나, 제도의 개선과 생산력 증대를 통한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신앙적인 열망으로 남게 된 것이 한계라고 하겠다.³⁵⁾

전무후무한 대순진리(大巡眞理)를 제창한 종교가로, 그를 신앙하는 증산계열의 수많은 신종교에서는 하느님(上帝)이 직접 인간세상에 강세한 것으로 믿기 때문에 증산성사(甌山聖師), 조화주신(造化主神), 구천상제(九天上帝)로 신앙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추후 증산성사로 통칭하고자 한다.

35) 조선조말 신종교의 후천개벽사상에 대해서는 황선명 외. 《한국근대민중종교사상》(학민사, 1981)와 장병길, <한국신흥종교사>, 《한국문화사대계》(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70), 그리고 최동희, 《동학의 사상과 운동》(성대출판부, 1980) 등을 참조할 것

6. 문학 · 문헌속의 理想世界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이상세계에 대한 지향의지는 여러갈래의 문학 작품 또는 저술활동을 빌어 표출되어 왔다. 우리 고전문학 작품이나 기타 문헌속에서 이상세계에 대한 형상은 구전 또는 문헌설화와 소설, 그밖에 漢詩와 散文, 고전시가, 기타 문헌 등의 다양한 장르에 걸쳐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다.

문헌설화에 나타나는 靑鶴洞 · 五福洞 · 太平洞 · 梨花洞 · 山桃源 · 食藏山 · 丹邱 · 回龍窟 · 檜山仙界 · 등 武陵桃源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제공간, 遊仙詩에 보이는 낭만적 상상력의 공간, 고전소설에서 그려지고 있는 天上 · 地上 · 水中의 諸仙界 空間 등은 고대 삼국시대의 도교적 상상력이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끊임없이 확장되고 발전되어 민족의 의식 속에 뿌리내려 왔다.

이상향에 대한 지향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문학작품이 집중적으로 생산된 시기는 어지럽고 혼란한 시기였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문학에 나타나는 이상향의 제양상과 여기에 투영된 사유 및 사유체계를 여기서는 설화 · 고전소설 · 기타문헌에 보이는 실제 地名등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상세계를 제한적으로 검토한다.

1) 설화속의 仙境의 모습

전래하는 여러 설화 속에는 이상향을 향한 열망과, 이 열망이 빚어낸 구체화된 이상세계의 공간이 여러 가지로 그려져 있다. 이들 설화에는 그 시대 민중들의 삶의 정서가 생생하게 살아 있어, 이상세계에 대한 의식의 가장 원초적이고 생동하는 원형을 만나 볼수 있다.

설화속에 보이는 이상세계의 형상은 흥미롭게도 대부분 小國寡民의 武陵桃源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문헌설화를 통해 확인되는 이상세계의 공간은 靑鶴洞 · 梨花洞 · 太平洞 · 五福洞 · 山桃源 · 回龍窟 · 丹邱 · 食藏山 등등이 있다. 이밖에 《鄭鑑錄》에 전하는 十勝之地 등도 다 비슷한 성격을 띤 이상세계이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청학동에 관해서만 보도록 하겠다.

지리산에 있다는 靑鶴洞은 설화 속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이상향이
다. 청학동은 신라 멸망 이후 외적의 침략을 자주 당하자 이를 피해 피난온
백성 및 당시 세상에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은둔하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
다. 이곳은 밭 갈고 글 읽으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만족하는 소박
한 모습의 이상세계이다. 청학동과 관련된 설화는 李仁老의 《破閑集》에
처음 그 기록이 보인다. 그가 묘사하고 있는 靑鶴洞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옛 노인이 서로 전하여 이르기를, 지리산 사이에 靑鶴洞이 있는데 길이
매우 좁아서 겨우 사람이 통행하되, 기어서 몇 리를 가야 虛曠地境을 얻
게 된다. 사방이 모두 좋은 밭과 기름진 땅으로 씨를 뿌리고 나무 심을
만하며 푸른 학이 그 가운데 깃들여 살므로 청학동이라 부르게 된 것이
니, 대개 옛적에 俗世를 등진 사람이 살던 곳이므로 허물어진 담과 구덩
이가 아직도 가시 덩불에 싸인 빈 터에 남아 있다고 하였다.³⁶⁾

靑鶴洞은 길이 좁아 기어서 몇 리를 지나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그
러나 땅은 비옥하여 속세를 피해 간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넉넉한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곳이다. 청학동의 묘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靑鶴이란 새이다. 이 새는 울면 천하가 태평하다고 전해지는 상서로운 새이
다. 그러므로 靑鶴에는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바람이 담겨 있고, 이는 역설적
으로 당대 현실의 혼란상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靑鶴洞에 관한 기록에 이어 이인로는 도연명의 <桃花源記>를 발췌한 뒤,
靑鶴洞과 武陵桃源이 다를 것이 없다고 적었다. 이는 그가 꿈꾸었던 청학동
이 사실은 武陵桃源의 원관념 위에 투사된 것임을 의미한다. 도연명은 벼슬
생활을 결연히 떨치고 전원생활에 들어갔으나 이곳의 생활에도 만족하질 못
하고 인생무상과 고독의 세계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절박한 심정
에서 그는 현세가 아닌 ‘武陵桃源’이라는 환상적인 이상세계를 생각했다. 무
릉도원은 원시 자연상태를 추구한 이상향이며, 동양인의 시적 이미지 속에
상징화된 이상세계로서, 은일 고사의 이상향으로 관념화된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친근한 이상세계로 부각되어 왔다.³⁷⁾ 때문에 그 이후에는 桃花

36) 李仁老, 《破閑集》 卷上.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역주본(1992), p. 10 참조

37) 金錫夏, 《韓國文學의 樂園思想 研究》(日新社, 1973), p. 113

보아도 武陵의 仙境을 연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인로는 <도화원기>의 무릉도원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졌으며 한편으로 그와 비슷한 청학동의 세계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破閑集》에는 또 《五柳先生集》을 읽다가 <桃花源記>를 되풀이하여 읽었음을 피력한 대목이 있어, 이인로에게 도연명의 영향은 지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인로는 그가 항상 동경하고 있던 도연명의 의지를 실천하고자 실제로 지리산에 있다는 이상향인 청학동을 찾아 나선 일이 있다.

얼마 전 내가 堂兄 崔相國과 함께 세상과 絶緣할 뜻이 있어 이 골짜기를 찾을 것을 약속하여 竹籠에 송아지 두 세 마리를 담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속세와 서로 연락을 끊으려 하였다. 마침내 華嚴寺로부터 花開縣에 이르러 문득 神興寺에서 잤더니 지나는 곳마다 선경 아닌 곳이 없었다. 천이나 되는 바위는 다투어 빼어나고 만이나 되는 골짜기는 다투어 흐르는데 대 울타리와 뗏집이 복숭아꽃 살구꽃에 어른거리어 거의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 그러나 청학동이란 곳은 마침내 찾지 못하였다.³⁸⁾

이인로는 무신란 이후 위기의 현실에 염증을 느껴 堂兄 崔相國과 함께 세상과 인연을 끊기로 결심하고 竹籠에 송아지 두세 마리를 담아 이곳에 들어와 살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러 날을 찾아 헤맸어도 마침내 靑鶴洞은 찾지 못하고, 古老의 傳信만 앞서와 같이 기록하고 말았던 것이다. 靑鶴洞이란 곳은 지리산 어느 곳에도 없었다. 다만 花開에서 神興寺(雙溪寺)로 가는 길목에서 仙境의 감격만을 적은 <遊智異山>이라는 詩를 바위에 적어 놓고 돌아왔을 뿐이다. 이인로의 <靑鶴洞記>는 한국판 <桃花源記>라 할 수 있다.

청학동은 가꿀 수 있는 땅이 1백여리 연해 있고 날씨도 일년 내내 따뜻하며, 탐관오리와 조세를 피하여 기름진 땅에 사람들이 살았고 또 그곳에서는 하늘나라 선녀들의 전설이 대두되기도 하는 곳이었다. 한국인의 이상향으로 자리잡은 '청학동'은 지리산의 어딘가에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으므로,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金宗直은 <頭流記行錄>에서 지리산 탐방 길에 안내를 하던 海空 스님이 丘陽縣의 북쪽 골짜기를 청

38) 李仁老, 《破5集》 卷上, 앞의 책, p.11

학동이라 지목하고 있는 대목이 보인다. 神仙이 산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청학동이라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李仁老가 찾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였다.³⁹⁾

또 金宗直의 제자 金駟孫은 <續頭流錄>이라는 기행문에서, “불일폭포를 중심으로 한 곳이 청학동”이라고 지적하면서,

28일 병진에 쌍계의 동쪽을 타서 다시 지팡이를 짚고 石燈을 더위잡고 危殘을 곁하여 두어 마장을 가니, 하나의 洞府가 나오는데 자목 너그럽고 평평하여 耕作을 할만하다. 세상이 여기를 들어 靑鶴洞이라고 한다. 놀러 생각해 보니 우리가 여기를 올 수 있는데, 李眉守(이인로)는 어찌 하여 오지 못했던가. 미수가 여기를 오고도 기억을 못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과연 청학동이란 없는데, 세상에서 서로 전하기만 하는 것인가. 앞으로 수십 보를 걸어나가 동떨어진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殘道를 지나니 암자 하나가 있는데 佛日庵이다.……암자 중이 말하기를, “매년 6월이면 몸뚱이는 파랗고, 이마는 붉고, 다리는 긴 새가 향로봉 소나무에 모였다가 날아 내려와 못물을 마시고 바로 간다.”고 한다. 여기 사는 중들이 자꾸 보는데, 이것이 청학이라는 것이다.⁴⁰⁾

라 하였다. 김일손은 직접 청학동을 탐방하여 견문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 역시 이인로가 이곳을 찾지 못한 일을 떠올리며 의문을 품었다. 그 중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과연 청학동이란 없는데, 세상에서 서로 전하기만 하는 것인가.”라면서 청학동의 존재에 대해 일말의 여운을 남겼다.

이밖에 종종 때의 문인 南越라는 사람이 하인을 시켜 청학동을 찾아가서 바둑돌을 얻어 왔다는 仙界說話가 있다.

남추는 곡성 사람으로 어려서 공부를 하는데 배우지 않아도 모든 것을 통하였다. 하루는 안개가 개이더니 몇 사람과 바위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를 의아하게 여기는데 남추가 집안의 심부름을 하는 아이에게 편지를 주면서 지리산 청학동에 가면 두 사람이 앉아 있을 터이니 전하고 오라 하였다. 도인이 “내 이미 네가 올 줄 알았다.”라며 웃더니, 바둑을 끝내고 답장과 함께 푸른 옥돌 바둑알을 주면서 가라고 하였다. 아이가 온 때는 9월 중순이어서 낙엽이 날리고 가는 눈이 뿌리고

39) 金宗直, <頭流記行錄>, 《국역 동문선》 11권 (민족문화추진회, 1982), p. 512

40) 金駟孫, <續頭流錄>, 《국역 동문선》 11권 (민족문화추진회, 1982), pp. 582~

있었는데, 돌아오면서 배고픈 줄도 몰랐고, 발 아래 풀이 움돋는 것을 보았다. 의아하게 여기면 청학동을 나서니 봄기운이 완연하고 초목이 돋아났다. 이것은 곧 인간 세상의 2월 일기였다.⁴¹⁾

이 설화에 이르러, 청학동은 이미 무릉도원형 이상세계 공간이 아니라 삼신산형 지상 선계의 공간으로 의미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곳이 선계임은 속계와는 전혀 다른 시간 관념으로 알수 있다. 심부름을 하는 아이가 청학동을 찾아가서 바둑 한 판을 두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돌아 왔는데 6개월이 지났다. 선계의 한 나절이 인간계에서는 6개월과 맞먹는 셈이다.⁴²⁾ “신선 놀음에 도끼 자루가 썩었더라.”라는 仙遊에 朽斧柯이라는 이야기는 선계 시간의 흐름을 지적하고 있다.⁴³⁾

즉 선계와 인간 세상의 시간적 단위가 상이함을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이다. 이 속담은 어떤 일에 몰두하여 시간을 잊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만큼 仙界란 自我를 잊고 無量한 시간의 흐름에 맡겨 버리는 無我之境의 경지라고도 생각된다. 이렇게 상이한 시차로서 선계에 사는 사람은 장생불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채집된 구비설화에도 易學者 백구룡이 제자가 지리산 청학동에 가서 최고운과 은단대사가 바둑을 두는 것을 보고 내려오니 6달이 지났다는 이야기가 있다.⁴⁴⁾

이러한 성격을 지닌 청학동 이야기는 문헌설화에도 나타난다. 《溪西野譚》의 <金進士錡>에는 선계가 묘사되고 있으며 老仙이 제자들에게 도술을 가르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김생이 청학동에 들어가 도술을 연마하였는데, 연마의 장소가

41) 李光 著 / 南晚星 譯, 《국역 동문서》 11권 (민족문화추진회, 1982), pp. 582 ~ 583

42)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韓國口碑文學大系》 8-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pp. 164 ~ 166에 실려 있다. :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신선들이 바위에 앉아 바둑을 두는 것을 구경하였다. 서너 판을 구경하다가 해가 너머가 무렵에 집에 가려고 하니 지게가 삭아서 사그러졌고, 도끼 자루가 딱 썩었으며, 수염도 하얗게 되어 있었다. 곧장 돌아왔는데 집에는 高孫들이 살고 있었다.”는 <신선암>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나무꾼이 돌아와 계산해 보니 이미 4대나 흘렀다는 것이다.

43) 孫晉泰, 《韓國民族說話의 研究》 (乙酉文化史, 1954), p. 68

4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口碑文學大系》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 791
참조

선계 청학동으로 묘사되어 있다. 설화는 전승과정에서 구연자의 의식이 가미되고 향유층의 흥미가 반영되어 변모되고 윤색하게 되기 마련이다. 이인로 이래로 막연히 무릉도원과 유사한 이상세계로 관념되던 청학동은 후대에 오면서 점차 설화적 윤색이 보태어져 보다 분명한 별천지의 선계 관념이 투사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靑邱野談》〈興元寺從遊靑鶴洞〉이란 설화에도 같은 내용으로 실려 있다. 한편, 청학동은 참위설 맥락에서 하나의 도참지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謙庵先生日記>와 <玉溪日誌>을 보면 종교적인 집단의 理想郷으로도 그려지고 있다.⁴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학동은 무릉도원과 유사한 모습으로 전승되어 온 한국적 이상향이다. 지리산 불일암 근처의 어느 곳으로 비정 되는 청학동은 武陵桃源의 고사처럼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으나, 대신 瑞禽이 靑鶴의 이미지로 신비화되고 후대 신선 고사와 결합되어 확장 부연되고 있다. 요컨대 청학동은 질곡의 현실 속에서 미래를 꿈꾸던 사람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상상에서 구축된 환상의 공간이었던 셈이다.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불안과 불만에서 도피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러한 이상세계를 꿈꾸었던 것이다. 자신이 목적인 인생의 꿈을 향유하지 못하고, 사회적 한계성과 인생의 고독감 등의 상황 속에서 탈출구를 상상력을 통하여 이상향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묘사했다. 즉 심령을 귀의시킨 이상향을 관념했던 것이다.

2) 고전소설에서의 신선세계

고전소설에는 설화와 달리 비교적 다양한 형상의 이상세계가 나타난다. 군담소설류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고전소설에는 오랜 설화적 전통을 지닌 天上이나 地上의 仙界, 또는 水府 龍宮의 세계 등 삼신산류에 가까운 이상세계의 모습들이 과거 한국인들의 사유와 상상세계 속에서 나름의 체계와 질서 아래 그려지고 있다. 조선조인들은 꿈과 상상의 날개를 빌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이상세계의 공간체험을 통해 현실에서의 개인적인 좌절과, 현실의 고통과 질곡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자 하였다. 혹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

45) 《溪西野譚》, <金進士錡>, 《朝鮮朝文獻說話輯要》(集文堂, 1991), P.345

계로 강하게 믿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즉 고전소설을 통하여 실제의 삶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동경을 표출하였던 것이다.

(1) 천상선계

어원적으로 본다면 ‘仙’의 古字는 ‘僊’이다. ‘僊’이란 飛揚升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선술을 터득한 선인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되겠다. 이 경우 하늘에 있다고 하는 이상향이 바로 선계로서의 천상선계이다. 천상선계는 원래 원시천존에 의해 제도된 최고선의 세계로 범상인이나 지상인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경계이다. 白玉京 혹은 瑤京으로 표상되는 이 경계는 하나의 피안세계이다.

고전소설에서는 현실과 선계를 조화시켜 새로운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냈는데, 天上仙界는 과거 선조들이 늘 동경하여 왔던 이상향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천상선계에 살고 仙人들을 통어하는 주재자는 옥황상제이며, 옥황상제의 권능 아래에서 장생불사하는 신선들이 제각기 직능을 맡아 이 세계의 질서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렇게 선인들은 또 하나의 세계를 통해서 그들이 뜻하고 동경하는 이상의 피안에 이를 수 있다고 관념 했다. 즉 죽음의 공포를 떨칠 수 없는 유한한 인생과 현실의 질곡에서 벗어나 선계에서 살고자 하는 끊임없는 동경은 자연스럽게 이상향을 찾고 여기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작품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고전소설은 대부분의 경우, 늦도록 자식이 없는 부모가 백일정성을 드리게 되고, 그 정성에 감동한 옥황상제는 득죄한 선관선녀로 지상계에 귀양을 보내 그 집에 만득자로 자식을 점지해 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태어난 주인공은 잠깐 행복했던 유년시절을 뒤로 하고, 부모와 헤어지는 고난을 겪으며, 절대절명의 순간에 道士, 산신령, 龍子 등 조력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다. 그 뒤에 도사에게서 둔갑술과 검법과 병법을 전수받은 주인공은 천상계에서의 비범성을 회복하고, 그때 마침 쳐들어온 외적을 물리쳐 공을 세우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즉 가계설명으로 시작하여 무자근심과 기자정성, 태몽을 통한 주인공의 출생, 어릴 적의 기행과 재주, 청장년기의 고난이나 비범한 활약상, 노년의 죽음 및 자손의 후일담

등으로 이어지는 일대기적 삶을 그렸는데, 이것이 바로 고전 소설적 서술체계의 중요한 특징이다.⁴⁶⁾

태몽은 출산을 神聖視하기 위한 것으로 신성화, 합리화의 좋은 구실로 사용되는 것이며, 《古記》에 기록되어 있는 성현들이 해나 별을 보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꿈의 형상을 빌어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⁴⁷⁾

태몽사를 표제로 한 <鸞鶴夢>(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중의 일부분이다.

첩은 옥경 스람이라 천부의서 선공의게 스환호옵더니 상계귀서 존공 부부의 정성을 감동선공의게 명호스 청을 보내여 존공 부부를 청좌함이라……. 처사 부뷔 선녀를 딸아기니 몸이 경험호야 바람의 불이는 듯 구름이 열나고 무리지 달이 천상의 빠쳐거늘 무심히 행호야 한곳이 다다르니……. 이곳이 옥경이라……. 이윽고 백옥문으로 광채 조요호고 통소 소리 들이더니 옥동자 이십여인이 두상에 계화를 꽃고 청의 백옥교를 미이고 나오며 뒤의 또 선여 슈십인이 황금교자를 미이고 느와서 처사 부부 압혜 교자를 놓고 오르기 청호니 …… 교자 놓히 안져 살펴보니 서편의 한 누각이 있으니 황금을 기둥하고 구슬노 벽을 하였는데 현관의 청광누라 하였고 …… 또 북편을 바라보니 큰 궁궐이 있는데 계명은 통명전이라 하였스니 옥황제 계신데라.

한엄범 부부가 석경산에서 기자치성하여 태몽을 얻는다. 그 꿈속에서 옥황상제의 심부름으로 한 선녀가 지상으로 내려와 한엄범 부부를 청한다는 부름을 전하고, 이들 부부가 그녀를 따라서 상계를 올라가 본 옥황상제가 거처하고 있는 곳의 모습을 두루 구경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백옥문, 통명전, 영관대, 청광루, 천청각 등 천상계의 지명 및 구조물 등 그 외양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천상관념의 구상적 표현을 통해 현실감을 부여함으로써 장소적 요소의 신뢰감을 획득하고 있다. 또 천상계의 환경도 현세와 다름 없이 표현함으로써 막연한 상계, 하늘나라라는 추상성을 벗어나고 있다.⁴⁸⁾

46) 이에 관한 것은 이종은, <韓國 小說上의 道教思想 研究>, 《道教와 韓國思想》(아세아 문화사, 1987), pp. 287~318을 참조할 것

47) 李能和, 《朝鮮女俗考》(학문가, 1968), p.183

48) 김용범<영웅소설에 나타난 도교사상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88), p.33

<玉樓夢>의 서두를 보면, 천상계의 文昌星이 양상서의 아들인 楊昌曲으로 태어나게 된 연유가 잘 나타나 있다. 천상선계의 잔치에서 옥황상제에게 특죄한 선관(文昌星)이 지상계로 적강한 인물이 바로 양창곡이라는 것이다. 그 가운데 낙성연 잔치를 펼치게 된 이유와 그 모습을 묘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보면 천상의 옥제가 12루 가운데 가장 미려한 백옥루를 중수하여 여러 선관들을 초청하여 낙성연을 베푸는 장면이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백옥경, 도솔궁, 12루, 광한전, 상청루, 백옥루 등은 천상계의 대표적인 구조물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잔치에서 文昌星이 詩를 지어 바치는데, 옥황상제가 들으니 속세와 인연이 있는 듯이 보였다. 옥황상제는 “오늘 밤 玉樓에 올라서 달이나 즐기고 돌아가라.”고 명하고 玉女와 諸天仙女를 보내어 도우며 놀게 하였는데, 이 자리에 天妖星, 紅鸞星, 桃花星 등의 선녀들이 와서 함께 놀다가 취해서 여섯 명이 잠이 들었다. 이때 옥련화 한 송이가 없어진 것을 안 세존은 천요성이 꺾은 것을 알고 이들을 5개의 명주로 만들어서 연화와 함께 속세로 던져버려서 이들의 인연을 맺게 하고 있다.

<숙향전>을 보면, 이야기의 중간 부분에 남녀 주인공이 꿈을 꾸고 천상으로 올라감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옥황상제가 계신 옥경과 잔치하던 요지 등의 모습을 세밀히 묘사하고 있다. 이는 태몽을 대신한 꿈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숙향이 꿈속에서 청조를 따라 천상계에 올라가서 瑤池를 구경하는 장면이다.

백사장 연못 가운데 구살노대를 모고 산호기둥의 집을 지엿스되 호박쭈추와 오색 구름갓치 아로삭여 광채 찰난흐며 바로보지 못홀너라 숙향이 우러러보니 전각우 황금조로 씻시되 요지보배료라 헛엇거날 엄숙흐여 드러가지 못하고 문밖괴섯으니 문득 셔다히러서 오색구름이 이러나며 향내 진동흐며 무슈흔 선관선녀등이 흑학도 타고 흑봉도 타고 쌍쌍이 드러가고 그뒤해 눈 석가여래오 신하호고 오백나한이 차례로 시위호야 오니 각색품류와 향내 진동호더라……. 나를(월궁항아)쫓차드러가 요디(瑤池)를 구경호고가라 숙향이 청조를 압세우고 항아를 따라 드러가니 그집 형용이 찬란홀뿐 아니라 팔진경장과 늑각호는 곳의 한보살이 절문 선관을 뒤해 세우고 드러와 상제 그선관다려 무르시되 태율이 어대갓더뇨 반갑다 인가즈미 엇더호더냐 쇼아를 만나본다 항애상제끼고왈 쇼애

발서죽을액을 네 번 지내었스니 그만 죄를 스허시와 석가려래끼 슈한을
 점지허되 칠십을 점지허옵쇼셔 상제가로스되 칠성을 명허야 자손을 점
 지허되 이즈일녀를 점지허라 남두성을 명허야 복록을점지허시니 남두성
 이 엿즈오대 아들은 정승허고 딸인즉 황후되게 허느이다.⁴⁹⁾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瑤池의 모든 건물은 산호기둥과 호박주주로 이루어졌고, 옥황상제는 육룡이 이끄는 황금수레를 타며, 선관 선녀들은 학과 봉을 타고 다니는 요지경의 모습과 이곳에 살고 있는 선관들의 임무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바로 옥황상제의 명령에 따라 석가여래는 수명을, 칠성은 자손을, 남두성은 복록을 관장하고 있음을 말한다.

숙향의 배필인 이선도 꿈에 천상계에 올라가 西王母가 잔치하던 瑤池를 구경하는데, 많은 선관선녀들이 등장하고 있다.

잠을 드러더니 부처 일도대 오늘 서왕모 잔치의 선관선녀의 만히 모인
 다허니 그대 나를 따라가 구경허라 선이 깃거 스레허고 부처를 따라가
 더니 한곳의 다다르매 연화 만발허고 루각이 층층허여 그위의 림림허니
 엄숙함을 층양치 못홀너라 부처선다려왈 저오식구름 모흔탑위해 안즈신
 이는 옥황이시고 뒤해는 삼태성이 모든 별을 거나리고 안젓고 동편황금
 탑 위해는 월궁항아시니 모든 선네근시허고 서편 백옥탑 우해 안즈시이
 는 석가여래시니 모든 부처를 거나려 계시니 내몬져 드러갈 꺼시니 그
 대조차 드러오라.⁵⁰⁾

옥황상제를 비롯하여 모든 별을 거느리는 삼태성, 모든 선녀들을 근시하고 있는 월궁항아. 모든 부처를 거느리는 석가여래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선관선녀들이 서왕모의 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천상계의 실상을 꿈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꿈은 천상계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통로로서의 구실을 하며, 천상계의 다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 꿈은 초시간성, 초공간성 그리고 초논리성 등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우와 두꺼비와 같이 상반되는 성격을 가진 동물을 등장시켜 서로 자기가 爭年을 다투도록 하여 인간성의 결점과 단점을 풍자한 《두껍전》이

49) 《숙향전》 (德興書林, 1919), pp. 30~31

50) 《숙향전》 . p. 36

있다.

내 하늘에 올라가 묘연히 三十三天을 두루 구경할 때 은하수 다리 한 곳에 있으되 이름은 鳥鵲橋라. …… 나를 모르더냐 인간에서 이르되 직녀성이라 하니 이름은 천손이라. 옥황상제 극히 총애하시매 슬하를 잠시도 떠날 줄을 몰랐더니 금분치던 牽牛星도 상제께서 사랑하시는 고로 응석하여 엄숙한 줄 모르고 하루는 상제께서 廣寒殿에 좌 하실새…… 잠깐 기상을 보니 미간에 수심이 있고 귀밑에 눈물 흔적이 있으니 이는 月宮姮娥라.…… 월궁을 지나가 차차 구경하고 열세째 하늘에 올라가니 그 서쪽에 구슬로 못을 파고 백옥으로 집을 짓고 운무병풍으로 가리웠으니 이는 瑤池宴 西王母 있는 곳이라.……천상선녀들이 모였는데 陽臺선녀며 洛浦仙女와 최열장군이며 白樂天이 그 좌석에 앉았으며……중앙을 의지하고 고루를 옥섬위에 지었으니 이는 紫微宮이라. 오장신장과 사해용왕이 응위하고…… 여러 선관과 선녀가 학창의를 입고 옥패를 차고 금홀을 들고 상제께 조회하려고 들어가니 太上老君, 日光老와 安期生, 이태백과 杜牧之, 소동파가 다 모였으며, 그리고 남천문 밖으로 나오다가 화덕진군, 마고할미에게 술 한잔을 사먹고 그대로 내달아 남극노인성을 보려고 하고 찾아들아가니 보탑상에 홍나삼을 입고 뚜렷이 앉았으며 연연한 백발노인이라. 서안에 책을 놓고 붓을 잡고 기록하니 이는 세상 사람의 壽夭長短과 부귀 빈천을 마련하는 곳이라.……남천을 다본 후에 제불제천을 보려고 삼십삼천에 올라 서천으로 가니 이는 극락세계라.……(노인이) 천만 뜻밖에 그대를 만나 죽을 사람을 살려내니 은혜 각골난망이라 하고 품속에서 붉은 구슬을 주어 알, 구슬 한 개를 삼키면 산수에 다닐 때 몸이 변화하느니라.⁵¹⁾

여우가 하늘에 올라 천상 백옥경에서 직녀성, 견우성을 만나고, 다시 서왕모를 만나고, 십사천에서 무산신녀며 양귀비를 만나고, 자미궁에서 오방신장 등을 만나고, 다시 태상로군, 화덕진군, 양극노인을 만나 인간의 길흉화복을 엿보고, 서천에서 극락세계를 보고 오다가 길가에서 한 노인을 만나 직녀성에게 받은 돌을 주어 그 노인의 병을 고쳐주니 그 노인이 붉은 구슬을 주되 그 구슬을 먹으니 둔갑하는 술을 배우고 내려왔다는 말로서 두꺼비에게 자랑하고 있다. 여우가 구경하고 온 천상계의 모습은 다른 고전소설보다도 매우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화몽》이나 《옥루몽》 같은 서두에는 천상 선계의 형상이 매우 세밀하게 자세한 필치로 묘사되어 있고, 《숙향전》에

51) 《두껍전》 (서문당, 1984), pp. 72~79

는 주인공의 꿈속에서 요지의 장면이 휘황하게 서술되어 있다. 《두껍전》에서는 옥황상제가 거하는 천상선계의 모습을 곳곳마다 매우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밖에 대부분의 소설에서도 선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김없이 등장한다.

고전소설의 작가들은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 화려장엄한 곳에 옥루를 만들고 그 외의 요지경을 미려하고 광대하게 표현한 것이다. 마치 현세의 궁전의 아름답고 큰 것을 최대한으로 확대하여 천상선계에 대한 상상을 자못 흥미롭게 그려 놓은 것이다. 특히 천상선계의 주재자인 옥황상제가 수명과 자식들까지 관할하는 것과 같이 초월적인 전능을 가진 것으로 보아 당시 인 들은 천상선계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미래에 대하여 어떤 약속이나 보장을 받기를 기원했던 것이다.

(2) 지상선계

선계의 존재를 하늘에서 구하려는 사고 방식이 다소 변하여 감에 따라 민중의 산악 숭배와 관련하여 내륙의 여러 명산에서 선계를 구하려는 데서 僊도 仙으로 변하였다. 세속의 번거로운 오염의 세계를 멀리 떠난 산은 통합적으로 신비, 신성, 해탈과 禪定 그리고 만고부동의 형이상화적인 숭고와 경이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산은 神靈과 神仙이나 도승과 같은 신격적이거나 해탈한 상태 또는 그들의 신성한 居所로 묘사되기도 했다. 중국의 선계인 오악, 곤륜산, 천태산 등은 그 유명한 것이고, 우리 나라에도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 등의 삼신산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地上仙界는 현세의 질곡과 고통을 벗어난 자유분방하고 유유자적할 수 있는 평화로운 異郷이며, 선계이므로 선조들에게 회자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지상선계의 양상은 매우 다채롭지만 일반적으로 화려한 경관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은 주목된다. 선계묘사의 극치를 이룬 작품을 살펴보자.

《萬福寺樗蒲記》를 보면, 양생은 초현실세계에서 여귀를 만나 오유하고 있다. 양생은 여인의 시에 화답하면서 여인을 월궁의 향아로 견주고, ‘기빠라 이제사 봉래섬을 찾았구나 선계가 여기던가 풍류도를 만났구려(自喜誤入

蓬來島 對比仙府風流徒)’라고 하여 자신들을 선향에 들어 온 풍류도라고 자처한다. 이렇게 여인과 정을 주고 받던 양생은 초현실계를 드나들 수 있는 道士나 方士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것이다. 도사가 심령술에 통달하여 魂魄을 찾아줄 수 있다거나, 방사가 符錄, 주술 등으로 한이 맺힌 인간들의 소망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준다는 것은 욕망의 불충족과 불만의 고뇌를 환술로써 카타르시스 할 수 있는 실재가 그들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도교적 민간신앙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⁵²⁾ 《만복사저포기》의 결말을 보자.

서생은 그 후 다시는 장가가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면서 살아왔다 하는데, 그가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는 아는 이가 없다.⁵³⁾

양생은 지리산에 들어가 세상을 마쳤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데, 여기에서 양생이 초현실세계로 지향하는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지리산은 앞의 설화문학 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둔하고자 하는 사람이 찾아가는 청학동이라는 선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바로 양생의 지리산 은거는 仙境으로의 복귀사상이 드러남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이다.

《구운몽》은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구분하면서 낙원의식을 구현해 본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지상선계는 연화봉으로 나타난다.

턴하의 일흠난 뵈히 다스시이시니 ……오악둥의 형산이 뉴의 머니 구의 산이 남녁에 잇고 동정회 북의 잇고 상강물이 삼면의 돌넛고 일흔두봉 가운데……년화봉이라 상해 구름속의 드리 청명한 날이 아니면 그 곳을 보디 못홀너라.⁵⁴⁾

오악에서부터 구의산, 동정호, 상가물 등의 정경을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연화봉은 쉽게 보지 못하는 곳임을 알려준다. 이 연화봉은 지상세계와는 대비되고, 그렇다고 천상세계도 아닌 산악선계이다. 여기에 六觀大師가 서역으로부터 와 도장을 설치하면서 이곳이 작품 전체의 기본적인 무대로

52) 최삼룡, <금오신화의 구조적 특질>, 《국어문학》 21집, p. 147

53) 金時習 著 · 李載浩 譯, <萬福寺樗蒲記>, 《金鰲神話》(乙酉文化史), p. 56

54) 정병욱 · 이승욱교주, <구운몽>, 《한국고전문학대계》(민중서관, 19730), p. 1

설정된다.

진시절 녀선 위부인이 도를 깨우쳐 하늘벼슬을 향여 선관 옥녀를 거느려 형산을 진정하여야시니 날은 남악 위부인이라 네로브터 오므로 녕한 자최와 괴이한 일을 이로 괴록디 못홀너라.⁵⁵⁾

이렇게 남악 위부인이 도를 깨우쳐 형산에 지상선계를 설정하는데, 이곳이 바로 神靈·神奇幻한 권능을 발휘하게 되는 신비한 선계인 것이다.

<삼자원종기>에는 선계의 모습이 더욱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부귀공명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일을 떨쳐버리고 장생불사할 수 있는 선계를 살고 있던 신관이 먼저 옛친구를 찾아감으로써 사건이 진행된다. 신선이 된 사람이 10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옛 친구가 평양감사가 되어 지나가는 것을 알고 그를 찾아가서 만난 다음,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仙境을 구경시켜 주는 장면을 보자.

비장파 하인들이 다 순막에서 쉬면 내 잠간 단녀 오리라 하고 한가지로 산중의 들어가니 주란화각이 반고에 걸여난데 명낭한 풍경소래 은은히 들이고 사슴은 왕내하고 난초난 무성한대 청아한 학의 소래 마음이 식식하고 향내 촉비하난 가운데 동자로 하여곰 인도하여 뵈시게 하니 이 난 별유턴지비인간이라.⁵⁶⁾

바로 이것이 선계에 들어가는 과정과 선계의 외형적 묘사이다. 이 작품은 신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여기에서 표현된 선계는 심심 산중에 있는 별천지이다. 신선이 된 친구는 그 곳에 우연히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그리고 내 집 경치를 두루 구경하라 하고 문을 열어 제끼는데, 이 또한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진다.

동문을 열고 보라 하니 감사 자세히 보매, 춘수는 만사택한 가운데 백화가 만발하고……또 남문을 열고 보니 하운이 다기봉한 가운데 수목이 무성하고……또 서문을 열고 보니 추월이 양명휘하는지라 단풍이 찬란하여 봉봉마다 오색이 영롱하고……또 북문을 열고 보니 동령에 수고송이

55) <구운몽>, p. 1

56) 《삼설기》, <삼자원종기> (서문당, 1984), p. 59

분명하다 낙엽된 초목 위에 백설이 흩날리고……그 동경이 거룩한지라
감사 두루 다니며 경계를 구경하고 놀라 가라사대, “그대 어찌 나를 속
여 눈을 현황케 하느뇨.”⁵⁷⁾

동쪽 문을 열어 보면 봄의 경치가 보이고, 남쪽 문을 열고 보면 여름의
경치가 펼쳐져 보인다. 그리고 서쪽 문을 열어 보면 가을의 풍경이, 북쪽 문
을 열어 보면 설경이 펼쳐진다. 이를 본 감사는 친구에게 자기를 속인다고
질책하고 있다. 이렇듯이 선계는 사계절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아름
답고 황홀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곳의 풍경은 인간계에 볼 수 있는 경
치와 다름이 없었다. 이로 미루어 생각하면 선계란 장생불사를 바라는 미약
한 인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이상적 세계임을 알 수 있다.

《구운몽》의 南田山은 연화봉보다도 더욱 사실적으로 묘사된 선계가 나
타나는데, 바로 藍田道人을 만난 곳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남전도인은 격이
높은 신선이며, 남전산은 전형적인 선경이다.

양생이 대경하여 급급히 서동을 드리고 남면산을 바라며 깊은 외골로
분찬하여 드리거나 절정의 흰 초옥이 이시대 흰구름이 즙옥히 끼이고
학의 우는소리 심히 높거늘 벽벽이 높은 사름이 있는 줄 알고 석경을
츠자 올라가니 흰 노인이 안자다가 생을 보고 널오대……생이 작일 산
의 드리울 계 버들가치지지 아엿더니 호로 스이의 물색이 변하여 바회
스이의 국화 만발하여거늘 생이 고이히너겨 사름을 만나 무르니 임의
팔월이 되엿더라.⁵⁸⁾

이와 같이 양생은 서동을 데리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어느 노인을 만나
고 있다. 여기에서도 산에 들어갈 때는 버들꽃이 지지 아니하였는데, 돌아올
때는 이미 국화꽃이 만발한 8월이 되었다는 것이다. 양생은 시공을 초월하
여 현세의 일상적 시간의 제약이 없는 선경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있다. 일
상적인 시간에서 벗어나 비현실적인 시간을 체험함으로써, 선경과 속세의
시간이 다름을 알려 주는 것이다. 선계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년, 혹은 10
년, 또 때로는 수십 년이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인간이 선약, 秘儀에

57) <삼자원종기>, pp. 58~59

58) <구운몽>, p. 40

의하여 늙지 않음을 지칭한다. 즉 신선이 되면 시간을 초월하여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삼자원종기》에도 선계와 현실계에 대한 시간 관념이 잘 나타나 있다. 평양감사로 부임 도중에 신선이 된 친구를 따라 산에 올라갔다가 만나절을 놓고 주막에서 기다리던 비장과 하인이 생각나 서둘러 하산하였다.

우리 우연이 서로 만나 종일토록 놀며 가미 조호되 발서 그 사이 일중이 지나시니 관하인이 기다릴지라 빨리 내려가 한가지로 발행하리라.⁵⁹⁾

이와 같이 감사가 신선이 된 친구와 보낸 시간이 半日밖에 되질 않았으나 내려와 보니 그를 수행하고 가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노옹에게 감사의 행차에 대하여 물으니 80년전의 일이라고 하였다. 또한 집으로 돌아가니 아내는 20년 전에 죽었고, 3살이었던 자신의 아들이 노인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 작품에서는 선계가 현실계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간의 차이는 선계가 불로장생의 시상을 실현하려는 욕망에서 구상된 관념적 세계이기 때문이다라는 시각도 있다. 《海東異策》의 <權真人> 이야기나,⁶⁰⁾ 《神仙傳》의 <呂文敬>이야기⁶¹⁾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흥미롭게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醉遊浮碧亭記>에서는 시간·공간을 동시에 초월하고 있다.

이밖에 仙境에 가거나 선녀를 만나는 작품이 있다. 이는 주인공들이 仙官·仙女의 謫降이라는 출생담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백학선전》의 은하는 닥친 위기에서 통곡하다가 기절하여 선계로 가서 아황·여영을 비롯한 많은 열녀들을 만났으며, 《양풍운전》의 양풍은 두 누이와 함께 선계에 들어가 후토부인의 도움을 받아 송산 선계의 옥령전을 찾아가서 돌아가신 어머니님과

59) <삼자원종기>, P.64

60) 이러한내용은 《해동이적》에 더욱 흥미있게 전해짐 : 洪萬宗 著 / 李錫浩 譯, 《海東異蹟》(을유문화사, 1982), PP. 66~83 참조

61) 葛洪 《神仙傳》, 呂文敬條 : 중국의 呂文敬이 하인 한 명과 하녀 한 명을 데리고 太行山으로 약을 캐러 가서 두 神人을 만나 제자가 되어 이틀 동안 비방을 전수 받고 인간계를 돌아와 보니 200년이 흘렀다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집에는 몇대 후의 자손으로 呂翹이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80세에 달하였으므로 그는 神方을 전수하고 떠났다. 즉시에 약을 복용하고 나이가 당장 젊어졌으며 2백 살이나 살고 산중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다.

상봉하였다. 《용문전》에서 노왕은 형산에 가서 연화산 신령을 만났고, 《반씨전》에서 반씨의 아들 위홍은 부친을 만나러 가던 도중에 선경을 찾아가서 놀았고, 반씨가 물에 빠졌을 때에는 선녀가 天桃를 주어서 목숨을 살려 주었다. 《정을선전》에서는 정을선이 금강산 옥윤동에 사는 금성지인에게서 구슬을 얻어와 죽은 추년을 살려내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만복사저포기》·《구운몽》·《삼자원종기》·《취유부벽정기》·《양풍운전》·《백학선전》 등의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지상선계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이상향이다. 그곳에는 착한 행실을 한 사람들만이 살고 있으며, 生老病死도 없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약도 있는 곳이다.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지상선계를 탐방하고 그곳에서 신선들을 만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향의 체험을 하며, 자신들에게 닥치는 많은 역경을 이겨낸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들이 행한 신선의 행각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이상이기도 하지만 어딘가에 있다고 믿어졌던 세계이었다. 현실 생활이 괴로우며 더욱이 이러한 이상세계를 추구하게 되고, 소설 작품에서나마 도술행각을 구사하여 울분을 풀어 일조의 카타르시스의 작용을 한 것이다. 바로 신선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내면적 심성을 표현한 것이다. 신선 중에도 지상선이 되었다함은 장생불로를 추구하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인간 세계를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려고 한 의미를 엿볼 수 있다.

(3) 수중선계

인간의 승화를 표상한 것이 천상선계라면, 수궁열락과 풍요로운 갈망을 욕구한 환상은 수중선계이다. 수중선계는 인간계와 절연된 바다나 섬에서 구하고 있는데, 바다 위에서 있는 외딴 孤島나 바다 속에 있는 용궁이 바로 그것이다. 수중선계는 수궁, 용궁으로 통칭되며 수중에 있다고 믿었던 서사 공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용궁을 이상향으로 인식하는 관념을 바탕으로 한 낙원 모티브가 많은 고전소설에서 드러난다. 河海中에 있는 용궁 혹은

水宮이라고 하는, 용왕의 궁전이 있는 異郷은 옛 사람들이 동경한 하나의 이상향이요, 낙원이다.⁶²⁾

고전소설에서 나오는 용궁은 水晶宮으로 흔히 등장한다. 투명한 물의 세계를 나타내는 그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흔히 珠宮貝闕이라 하듯이 각종의 금은 보배와 구슬로 장식되어 왔다.

《龍宮赴宴錄》은 韓生이란 文士가 개성의 天磨山 밑의 瓢淵에 살고 있는 용왕에게 상량문을 지어주기 위하여 초대를 받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생이 용궁을 방문하게 된 동기가 다른 고전소설에서와 같이 꿈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수부의 이상향으로 옮겨지고 있다. 한생은 용궁의 초대를 받아서 용왕의 딸을 위하여 지은 佳會樓의 上樑文을 지어준다. 여기에서 上帝, 瑤宮, 玉殿 등을 말하고, 또한 연회가 무르익자 용왕에게 바친 20운의 시에서도 仙語를 나열하여 자신의 심회를 마음껏 펴 보이고 있다. 그 뒤에 한생은 사자의 안내로 용궁을 구경하는데, 그의 눈에 비친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용궁의 좋은 일들은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 위에 또한 궁실의 웅장함과 강토의 광대함도 두루 구경할 수 있겠나이까? 좋습니다. 서생은 허가를 얻어 문밖에 나와서 눈을 크게 뜨고 보니 다만 오색 구름이 주위에 둘러 있으므로 동서를 분별할 수 없었다. 용왕은 구름을 붙여 없애는 사람에게 명하여 구름을 걷게 하매 한 사람이 뜰에 서서 입을 줄이면서 한번 붙어버리니 하늘이 환하게 밝아져서 산과 바위 벼랑도 없어지고 다만 넓은 세계가 바둑처럼 된 것이 수십 리나 되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그 안에서 벌여 심겨 있고, 바닥엔 금모래로 퍼져 있고 둘레는 金城으로 쌓여졌으며 그 행랑과 뜰에는 모두 푸른 유리벽돌을 펴고 깔아서 광채와 그림자가 서로 비치었다. 용왕이 두 사자에게 명하여 서생을 인도하여 관람시켰는데, 한 곳에 이르매 누각 한 채가 있으니 그 이름은 朝元之樓라 하였다. 이 누각은 전체가 파리로 만들어 졌으며 구슬과 옥으로 장식하고 누르고 푸른빛으로 아로새겼는데, 그 위에 오르매 마치 허공에 오른 것 같았으며 그 층계는 열 층계나 되었다.⁶³⁾

용궁에서는 인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경치와 신기한 일이 진행되고

62) 金錫夏, 《韓國文學의 樂園思想 研究》(日新社, 1973), p.259

63) 金時習 著 / 李載浩 譯, <龍宮赴宴錄>, 《金鰲新話》(乙酉文化史, 1969), p.

있다. 온갖 화초, 푸른 유리 벽돌, 파리와 옥과 구슬로써 장식된 건물들은 아무데서나 쉽게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水部에서 본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뜰에 서서 입을 즐이면서 한 번 불어버리니 하늘이 환하게 밝아져서”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天地란 곧 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어서 한생은 朝元樓를 거쳐서 용왕이 상제에게 조회한다는 능허각(凌虛閣)에 당도한다. 이 용궁에는 옥황상제를 朝會하는 능허각이 있으며 용왕은 이곳에 올라 옥황상제를 뵈고 그의 명을 받드는 仙官으로 묘사되어 있다. 즉 용궁은 옥황상제의 권하에 있다는 의미이다.

위와같이 한생의 龍宮出入은 천마산의 山俗에서 출발하지만, 연못 저쪽으로 상징되고 미화된 龍宮憧憬의 표현은 전통적인 異鄉意識에 바탕을 둔 것이다. 또한 용궁에 갔다왔다는 것이 주인공의 포부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가상적인 설정이었지만, 김시습은 이를 통하여 이상향에 대한 강한 집념을 토로 한 것이다.

《九雲夢》에서는 용왕이 육관대사의 강론에 참여함으로써 그 용궁이 실재함을 알려주고 있다. 용왕이 백의 노인으로 化現한다는 신비성이 그 용궁이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육관대사의 講論에 참여한 답례로 성진을 용궁을 다녀오게 하는데, 이를 통하여 그 용궁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이따 성진이 물경을 열고 수정궁의 나아가니 농왕이 크게 깃거 친히 궁문 벗기 나아가 마자 상좌의 안치고 진찬을 7초아 존채하여 대접하고 손소 잔 잡아권하거늘 성진이 굴오대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이라 불가의 뉴의 큰 경계년 감히 파계를 못하느이다……. 64)

곧 성진이 용왕을 만난 곳을 수정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바로 수정궁으로 표현되는 용궁이 화려찬란한 별유천지인 신비공간이다. 여기까지는 대사와 성진이 현실적으로 체험한 용궁의 실상이거니와 다음은 夢中の 楊少遊가 체험한 용궁이 있어 특이하다.

양상세 농녀로 더브러 흥가지로 술위를 타니 신명의 바람의 술위 박희
 를 브러 공동의 오르니 임의 인가의셔 몇 천니를 떠놓는 줄을 아디 못
 흥대 다만 흰 구름이 세계를 업혔는 양을 불러라 경기간의 동정의 다드
 르니 농왕이 마즈 빈두의 네와 위의 엄숙허더라 농왕잉 슈족을 모르고
 대연을 백설허여 상셔의 빠흠이되고 농녀의 집의 도라오를 경하홀새 술
 이 취허매 온갖 풍뉴를 진허니 절죄 진탕허여 인세의 다르더라.⁶⁵⁾

이렇게 양상서가 찾아간 용궁은 수중의 신비적인 요소를 지닌 수중선계로
 서의 역할을 한다. 단지 수중선계로서만 설정하지 않고 공중을 통하여 용궁
 끼리 왕래한다고 구성하여 그 신비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심청전>에서
 의 수부 공간도 유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옥황상제가 사해용왕에게 命하여 심청을 맞이하도록 하는데. 수정궁에는
 천상의 이름난 신선들이 다 모인다. 鶴을 탄 太乙辰君, 鸞鳥를 탄 安期生,
 구름을 탄 赤松子, 獅子를 탄 葛仙翁, 고래를 탄 李謫仙에 月宮姮娥·麻姑仙
 女·南岳老人·八仙女·靑衣童子 등이 운집하여 있었다. 풍악이 질탕한데
 여기에는 玉子晉의 봉피리, 枰處사의 죽장고, 琴高의 거문고, 장량의 옥통소,
 계강의 해금, 院籍의 휘파람 등과 어울린 낭자한 풍악 소리 수궁이 진진하
 였다. 水晶宮의 구상적 환경을 <심청전>에서 보면, 집치레 또한 황홀하다.

수정궁 들어가니 집치레가 황홀허다 천여간 수정궁에 호박기둥 백옥주
 오 대모란간 산호주렴 광채 잔란하고 서기가 반공이라 주궁패궐은 응천
 상지 삼광이요 비인간지 오복이라 동으로 바라보니 대봉이 비진허야 슈
 색이 넘과 같고 서으로 바르보니 추야요지왕모강허니 일싸 청조 날아들
 고 북으로 바르보니 요천하쳐서 중원고 일만청산이 푸르렀다.⁶⁶⁾

이를 <구운몽>과 비교하여 볼 때, 성진이 용왕을 만난 곳이며, 심청이 찾
 아들어간 곳이 모두 수정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부에 들거
 나 나는 곳은 각각 다르나 공히 그 모습을 수정궁으로 일컫고 있다. 이는
 수부, 용왕의 거처가 수정궁으로 관념화되었다는 뜻이자, 수정궁은 곧 수부
 의 대표적인 상징 구조물임을 말한다.

수정궁은 각종의 보화로 장식된 궁궐로 묘사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생활

65) <구운몽>, p. 216

66) <심청전> (서문당, 1984), p. 59

용품은 모두 진기한 보물로 되어 있다. 또한 그곳의 음식은 인간 세계에서 는 감히 맛보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호박 기동, 백옥 주추, 대모 난간, 산호 주렴이 반공에 찬란하고, 주궁패궐은 天上의 三光을 응하였다. 뿐만 아니라 음식은 피리상·화류반에, 산호잔·호박대며, 자하주·연엽주를 기린포로 안 주하고 호로병·제호탕에 감로주를 곁들이고 온갖 진수성찬을 내놓는다.⁶⁷⁾

또한 심청은 이곳에 이르러 그의 모친 玉眞夫人을 만나게 되는데 이를 미 루어 생각하면, 수부는 천상과 같은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못 신선들이 모여 있는 수부는 천상선계와 동일한 선계의 공간이나, 다 만 수부의 위치는 수중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에 비하여 천상선계는 인간 의 위에 있을 뿐이다. 천상계는 온 세계를 지배하고 주관하는 옥황상제가 계신 곳이며, 수중세계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드는 용왕이 다스리는 곳으로 용왕도 일종의 선관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용궁부연록>·<구운몽>·<심청전>·<토끼전> 등에서는 용궁의 모습이 비교적 세밀히 표현되어 있다. <최고운전>·<김원전>·<김진옥전>·<양 주봉전> 등에서도 용궁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용궁은 선계와 같 은 곳으로 장식되어 있으며⁶⁸⁾ 모든 주인공들은 출입이 현실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없이 이루어 진다. 즉 현세적 장애를 받지 않고 선계, 수부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인공들이 상상 세계인 용궁을 龍子の 인도로 들어가거 나 그곳을 침범하는 적을 물리쳐 주기도 하고, 그 사례로 진기한 물건을 선 물로 받아오기도 하는 등 환상적 공간의 체험을 통해 흥미를 만들어 냈다. 경이로운 상상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더욱 중요시되는 변화를 가져왔던 것 이다.

3) 地名上의 이상세계

실제의 공간 형상으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후기 실학자인 李重煥의

67) 앞 같은 곳

68) 조석래, <水中仙界의 憧憬>, 《국어교육연구》 1호 (전국교육대학국어연구 회, 1972) : 1) 선계와 같은 용궁의 주궁패궐로 장식되어 있고, 여기에는 진기한 寶珠나 불사약(선약) 등이 있다. 2) 이곳에서도 선관·선녀가 있고, 용과 仙童·선녀는 同態이다. 3) 용궁은 옥황상제가 관장하는 천상선계의 하위선계로 표상되어 있다. 4) 용관계 설화와 관련이 있는 주인공은 천상에서의 인연이 있다.

《擇里志》에 보이는 當山, 萬水洞, 邊山 등과 같은 이른바 藥士의 존재이다.

“합천 가야산은 뽕죽한 돌이 줄을 잇달아서 불꽃 같으며, 공중에 따로 솟아서 극히 높고 또 빼어났다. …中略…안쪽에 절(海印寺)이 있고 서북편이 가야산 산봉인데, 돌 형세가 사면으로 각아지른 듯하여 사람이 오를 수 없다. 그 위에 평탄한 곳이 있는 듯하나 알 수 없다. 그 꼭대기에는 항상 靈氣가 자욱하게 덮여 있다. 나무꾼과 목동이 봉우리 위에서 들려오는 풍악소리를 가끔 듣는다. 큰 안개가 끼면 산 위에서 말 발자국 소리가 날 때가 있다고 한다. 골 바깥쪽 가야 천 연변은 눈이 아주 기름져서 종자 한 말을 뿌려 소출이 120-130斗나 되며, 적더라도 80斗가 넘는다. 물이 넉넉하여 가뭄을 모르고 또 밭에는 목화가 잘되어서 이곳을 양식의 고장이라 일컫는다. 가야산 동북편에 萬水洞이 있다. 또한 깊고 긴 골짜기로서 복지라 하며, 세상을 피해서 살만하다.⁶⁹⁾

합천 해인사 주변과 가야산 동북편에 있다는 만수동은 애써 갈무리하지 않아도 땅이 기름져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살기에 족한 福地로 알려져 왔다. 사면으로 각아지른 듯한 골짜기 사이에 있고, 운기에 덮여 있어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 기껏해야 나무꾼과 牧童 정도만이 그 주변에 이를 수 있을 뿐이다. 기존의 사회와는 구름과 높은 산으로 격리되어 있으나, 모든 것이 자생자화함으로 애써 가꾸지 않아도 되고 최소한의 조건만 갖추어 지면 된다.

많은 財貨를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생겨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규제할 질서와 법 또한 필요치 않다. 모든 종류의 억압과 분쟁은 과도한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억압과 분쟁이 인간이 소망하는 이상적 삶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 같은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 위 인용에 그려진 자연상태가 최선의 사회 곧 福地로 인식 될 수 있다.⁷⁰⁾ 이러한 점은

69) 李重煥 著 / 李翼成 譯, 《擇里志》(을유문화사, 1994), pp. 163~165

70) 李重煥 著 / 李翼成 譯, 《擇里志》(을유문화사, 1994), p. 174에서도 邊山의 자연상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즉 “노령산 맥 한 줄기가 북쪽으로 부안에 와서 서해 한 가운데로 쭉 들어갔다. 서쪽, 남쪽, 북쪽은 모두 큰 바다이고, 산에는 많은 봉우리와 구렁이가 있는데, 이것이 邊山이다 골 바깥은 모두 소금 굽고 고기 잡는 사람의 집이고, 산중에는 좋고 기름진 밭이 많다. 주민이 산에 오르면 나무를 하고 산에서 내려오면 고기잡이와 소금굽는 것을 업으로 하여 땀나무와 조개 따위는 값을 주고 사지 않아도 풍족

다음의 인용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지리산은 南海가에 있다. 이것이 백두산 산맥이 크게 끝난 곳이므로 한의 명칭이 頭流山이다. 世間에서는 금강산을 蓬萊山, 지리산은 方丈山, 한라산을 瀛州山이라 하는데 소위 三神山이다. 地志에는 지리산을 太乙山人이 사는 곳이며, 못 신선이 모여 사는 곳이라 하였다. 골이 서리어 뒤섞였고 깊고 크다. 흙이 두텁고 기름져서 온 산이 모두 사람 살기에 알맞다. 산 안에 백리나 되는 긴 골이 있어, 바깥쪽은 좁으나 안쪽은 넓어서 가끔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곳이 있고, 나라에 稅도 바치지 아니한다. 지역이 남해에 가까우므로 기후가 따뜻하여 산중에는 대가 많고 또 감과 밤이 매우 많아서 저절로 열렸다가 저절로 떨어진다. 기장이나 조를 높은 산봉우리에 뿌려 두어도 무성하게 자란다. 평지 밭에도 모두 심으므로 산중에는 촌 사람과 중들이 섞여서 산다. 중이나 속인이 대를 꺾고 감이나 밤을 주워서 수고하지 않아도 生利가 족하며, 농부와 工匠이 또한 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충족하다. 이리하여 이 산에 사는 백성은 풍년·흉년을 모르므로 富山이라 부른다.⁷¹⁾

바깥쪽이 좁은데 비해 안쪽은 넓고, 나라에 稅를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富山の 지형지세나 삶의 모습은 <桃花源>에 그려진 이상사회의 모습과 비슷하다. 여기에 각종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고, 사람들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한데 어우러져 살아간다.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될 만큼 현실세계와 격절되어 있으며, 自生하는 곡식만으로도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공간이다.⁷²⁾ 따라서 권위와 의무도 필요 없고 생산과 분배의 원칙도, 정치와 종교 또한 필요없는 지극히 평화로운 공간이다. 自生自化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자연의 힘이지 인위적 질서와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보다 좋은 곳을 소망하는 인간의 진보적 의지를 토대로 형성되는 ‘大同社會적 이상세계’와 구분되고, 꿈이나 상상력을 바탕으로 현재 보다 나은 곳을 심리적으로 지향하는 ‘三神山적인 이상세계’와도 구분된다.

하다.”

71) 李重煥 著 / 李翼成 譯, 앞의 책, p. 161

72) 서구에서 유래한 유토피아 유형 가운데 ‘아르키디아’는 것과 꿀이 넘쳐 흐르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공간이다. 모든 것이 풍요롭다는 점에서는 코케인도 이와 동일하지만 아르키디아인들은 자연적 절제와 조화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코케인에서는 모든 것이 풍요롭게 사람들은 그저 이 안에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법과 질서도 필요없다. 이런 점에서 《擇里志》에서 그리고 있는 富山, 邊山, 萬水洞은 성격상 코케인과 유사하다.

무릉도원적 이상세계는 꼭 산중 깊은 곳에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絶海孤島 상에 위치한 것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송나라 때 王禹偁은 <録海人書>란 글에서 秦나라 말 海島의 夷人이 황제에게 올린 上書의 형식을 빌어 海島 상에 존재한 樂土의 모습을 그려 보인바 있다. 이른바 海人國은 100호의 주민들이 농사 짓고 고기 잡아 배를 채우며 약초농고 엮드려 햇별을 쪼이거나 발을 물에 담그며 앉아 자유자락하는 생활을 보내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그 성격은 武陵桃源과 거의 유사하다.⁷³⁾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해인국의 이상세계와 거의 방불한 형태의 이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李珣의 《嘉林三稿》에는 <義島記>란 글이 실려 있다.

대동강 가의 소년 10여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로 표류하여 여러 날 만에 한 섬에 닿았는데, 그곳에서 지나가는 뱃사람을 만나 그들이 사는 곳으로 건너 가니 그곳이 곧 義島였다. 義島는 주위 수십 리의 섬이었고, 수백호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복식은 중국과 비슷하였고, 풍속은 순박하고 옛스러우며 예의가 있었다. 서로 술이며 먹을 것을 가져 와 소년들을 대접하였는데, 임금이나 뉘 사람이 없고, 조세나 공납을 바치는 일이 없었다.⁷⁴⁾

전형적인 무릉도원적 이상세계의 모습이다. 이곳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소년은 그곳 여인과 혼인을 하였으나, 소년들은 뒤에 중국으로 갔다가 우리 사신을 따라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다. 李珣은 이들이 명나라의 유민으로 만주족에게 신하 노릇을 할 수 있어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가 산 사람들 일 것이라고 보았다.

또 《靑邱野談》 권 6, <赴南省 張生漂大洋>이란 제목의 글에도 실존인물 張漢喆의 실화에 바탕을 둔 海島 표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제주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張生의 일행 24인이 남쪽 流球國 근처 虎山島란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이 동서로 좁고 남북으로 길어 주위 4, 50리되는 무인도로 한 줄기 맑은 샘물이 흐르고 섬에 가득히 나무가 우거졌으며, 암석 사이로 굵은 대나무가 들성들성 자라며, 노루와 사슴이 떼지어 놀고 까마귀와

73) 李成珪, 앞의 글, p. 228

74) 李佑成 · 임형택 編譯, 《李朝漢文短編集》 上(일조각, 1983), pp. 337~339

까지가 숲에 깊들어 있는 그런 섬이었다. 섬 중앙에는 산봉우리 셋이 서로 빼어나 높이가 5, 60길이 되는데, 물줄기가 중봉으로부터 나와 구비구비 긴 시내를 이루고, 동쪽 바다로 빠지며, 그 속에는 굴나무가 자라고 산에는 약초가, 바닷가에는 전복이 즐비하게 많은 그런 섬이었다.⁷⁵⁾ 이 섬의 묘사는 거의 <許生傳>에 보이는 無人空島의 형상과 비슷하다.

제주도민이 꿈꾸어 온 이상향인 이어도 또한 海島型 이상세계의 한 변형으로 보여진다. 제주 민요에서 이어도는 연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는 극락세계와 동일시 되거나, 전복과 미역 등 해산물이 풍부한 고갈되지 않은 자원의 세계, 또는 신선들이 거주하는 일종의 무릉도원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곳은 천리 남쪽 바다 밖에 파도를 뚫고 꿈처럼 하얗게 솟아 있다는 섬으로, 한 번 그 섬을 본 사람을 영영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공간이다. 이는 제주도민들의 빈곤과 궁핍, 해상생활의 공포와 두려운 현실 자체를 대치시켜 줄 목가적인 자연상태나 황금시대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기도 하다.⁷⁶⁾

조선중기 이후에는 十勝之地說이 널리 민간에 유포되었다. 十勝之地란 전쟁이나 天災가 일어나도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열 군데의 땅을 말한다. 원래 승지란 풍광이 매우 아름다운 곳을 일컫는 말인데, 가뭄과 대규모의 질병, 특히 거듭된 대규모의 전란 등 사회불안을 겪으면서 굶주림과 전쟁을 면할 수 있는 피난처의 의미로 확대되었다.

十勝地를 명시적으로 거론한 사람은 조선중기의 풍수가인 南師古와 《擇里志》의 저자인 李重煥 등인데, 이 외에도 민간에서 신봉된 십승지는 다양하다. 이중환의 십승지가 문화지리학적인 지식과 소양에 바탕을 둔 지식인들의 擇地觀이었음에 반해, 민간에 유포된 십승지지설은 대부분 전통적인 풍수도참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잦은 병화 또는 삼정의 문란 등으로, 향촌에서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고 유랑민화 한 많은 백성들이 임진란이나 6.25동란 중에도 피해를 입지 않은 깊은 오지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그만큼

75) 李佑成·임형택 編譯, 《李朝漢文短篇集》 上 (일조각, 1983), p. 342

76) 金恩石, <이어도 : 理想과 絶望의 世界>, 《韓國學論集》 第12輯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7. 8), pp. 345~354와, 崔惠實, <이어도에 나타나는 유토피아의 空間性과 時間性>, 《國語教育》 제11진(국어교육연구회, 1989), pp. 309~322 참조

고통스러운 현세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민중의식의 반영이라 할 만하다.

이와 아울러 조선후기에 민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鄭鑑錄》이다. 《鄭鑑錄》은 조선시대 이래 민간이 널리 유포되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언서로, 여러 가지 鑑訣類와 必訣書의 집성이며 이본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鄭鑑錄》이 만들어지고, 민간에 전승되며 조선후기로 내려올수록 더욱 유행했던 것은 점증되는 반왕조적 분위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회변동의 와중에서 몰락 양반들은 풍수지리설이나 음양오행설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왕조교체와 사회변혁의 법칙을 우주론에 입각한 운세의 법칙과 결부지으려 하였다. 대체적으로 성립시기는 외적의 침입에 의하여 사회적 혼란이 극심하고 일신의 안전도 지키기가 힘들었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로 추정된다. 《鄭鑑錄》의 내용은 난세에는 풍수설에 따라卜定된 피난처에서만 지복을 누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진인이 출현하여 이세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예이다. 미래에 다가올 멸망에 대비한 피난처로서의 이상경에 대한 동경이 《정감록》 전반을 관류하고 있다.

조선후기의 하대로 내려올수록 반왕조적인 색깔이 짙어져서 반란이나 대규모의 민란은 모두가 《정감록》으로부터 우러나온 진인출현설이 압도하게 되었고, 더욱이 19세기의 민중운동이 모두 《정감록》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동학을 기점으로 속출한 한국의 종교운동이 거의 모두가 정감록과 일맥을 통하고 있다고 할 만큼 민중의 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 중 진인출현설은 《정감록》 신앙의 본령이라 할만하다. 일종의 메시아니즘적 성격을 지닌 진인출현설은 말세가 쇠진한 뒤에는 정도령, 즉 구세주가 나타나 세계를 구원하고 복락이 약속된 새로운 세상을 열 것임을 약속한다. 이는 미륵신앙, 그리고 후천개벽사상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데, 실제로 조선말기에는 이들이 모두 어울어져 대단한 상승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에는 진인의 인격적 특질이 어떠한지는 구체적 상황이 설정되지 않은 익명성이 두드러짐으로써 조선후기의 정감록 신앙과 결부된 민중운동은 종교적 성격이 매우 애매모호하다. 따라서 운동의 방향이 주술적 신비성을 띠며 이념적 지표의 불확실성이 엿보인다.⁷⁷⁾

특히 조선후기 대부분의 民亂 기도나 民亂에서 확인되는 鄭真人이 살고 있다는 海島의 이상향은 이런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 흔히<許生傳>에 보이는 邊山群盜와 관련지어 얘기되는 三峰島가 그것이다. 삼봉도는 일반 민중이 열망해 마지 않는 고통과 억압이 없는 이상향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이 삼봉도의 이름은 이미 15세기 말인 성종 연간부터 운위되고 있다. 이곳은 토지가 비옥하고 풍요로우며 멀리서 보면 산봉우리가 셋이 있기 때문에 삼봉도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위치는 함경도 慶興에서 청명한 날에는 멀리 바다를 보인다고 하며, 회령 땅에서 동으로 7晝夜를 가야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이곳에는 逃賦背國의 무리, 즉 세금을 피해 나라를 등지고 떠난 무리 천여 명이 살고 있다 하여, 정부에서 몇 차례에 걸쳐 이곳을 搜討코자 하였으나 백질이 험하고 위치가 정확치 않아 실패하고 말았다. 대개 오늘날의 북해도를 일컫는 것으로도 보인다.⁷⁸⁾

특히 영조 연간 나라를 발각 뒤집어 놓았던 黃鎮紀의 捧書事件에서는, 이 삼봉도를 거점으로 하여 빈한한 자들과 미천한 자들을 위하여 무신망명 역적인 황진기가 鄭真人을 모시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울릉도 월변의 섬에서 나오고 있으니 청주와 문의가 먼저 함락되고, 이어 서울이 함락되며, 이씨를 대신하여 정씨가 가난이 없고 귀천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내용의 捧書로 당시 경기도와 충청도의 백성들을 동요케 하기도 하였다.⁷⁹⁾

뿐만 아니라 조선 말기 조선 남부 지방에서 성행한 《鄭鑑錄》의 십승지설과 관련하여, 金有司란 사람이 압록강 북쪽 만주 지방 어딘가에 楊花坪·玉溪村이란 이상세계가 있다는 유언비어를 지도와 함께 널리 유포하여, 이 말을 흑신한 각처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해매다가 비명에 죽은 자가 몇 천명이나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마침내 정부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그 진위를 알아보게 하는 지경에 이른 일도 있었다.⁸⁰⁾ 고종 초년 평안도 지방

77) 이상 정감록 신앙에 대한 서술은 신일철, <해제 정감록>, <한국의 민속종교사상>(삼성 출판사, 1981), 최정수 <정감록에 대한 사회적 고찰>(해방서림, 1948) 등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78) 정석중, <朝鮮後期 理想郷, 追求傾向 과 三峰島>,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下 (창작과비평사, 1990), pp. 51~95

79) 정석중, 앞의 글, p. 92 참조

에는 만주에 眞人이 출현했다는 설과 勝地設이 광포되었는데, 이는 《鄭鑑錄》에 있는 갑자년에 혼란이 온다는 설에 부회하여 평안도 사람들에게 피난 갈 수 있는 十勝之地를 만주에 있다고 유포한 데서 비롯된 소동이었다. 이러한 楊花坪·玉溪村과 같은 이상세계는 바로 함경도 갑산 지역에 유포되었던 태평동 고사와 유사한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 유의할 만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상선계, 지상선계, 수중선계 등 고전소설 속에 나타나는 仙界와 仙境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상 속의 이상세계이다. 이들 이상세계는 三神山적 이상세계의 한 전형을 보여 주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 작품 속에 나타나는 각각의 공간들이 나름대로 일관된 질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바로 고전소설의 작자나 독자들의 상상체계 속에 이들 이상세계들이 질서 있게 수용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환상적인 상상의 세계에는 도교의 신선사상이 절대적인 영향이 미쳤다. 그 결과 설화에서는 이상세계 양상이 주로 무릉도원적 이상세계로 나타났던 것에 반해 고전소설에서는 三神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교의 목적이 장생불사에 있으며,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선관선녀들은 천상선계, 지상선계, 수중선계 등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다는 그 자체부터가 소설로서의 상상세계를 다채롭게 꾸밀 수 있다는 이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독자들은 천상과 지상, 그리고 수중의 변별이 존재하는 상상 속의 이상향을 찾아 고전소설 속의 세계로 들어가서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며 현실에서의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였다. 바로 당대 민간에 깊이 뿌리내린 민중도교의 신앙은 소설 속에서 선계공간을 허구가 아닌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하였고, 이들은 이러한 사유의 바탕 아래 현실의 고통을 감내 할 수 있었던 것이다.

80) 이때 일을 적은 보고서와 지도가 《江北日記》란 이름으로 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94년 간행된 바 있다. 鄭求福의 <江北日記 解題>에 그 전후 사정이 자세히 실려 있다.

V. 大巡思想에서의 理想鄉 道通眞境과 그 現代的 理解

증산성사(甌山聖師)는 구한말인 1871년 탄강하여 1909년 화천할 때까지, 광구천하(廣救天下)의 인류대망을 실현키 위해 天·地·人 삼계(三界)를 근원적으로 뜯어 고침으로써 우주개조(宇宙改造)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실행한 위대한 사상가(思想家)요, 신인(神人)이다. 뿐만 아니라 그를 신앙하는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증산성사는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제도와 무지로 부터 고통 받아온 민중들의 하느님이요, 상제(上帝)요, 미륵불이요, 개혁주인 것이다.

현대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인류는 인류가 안고 있는 치유하지 못할 병으로부터 구제와 구원 받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그것이 실현되는 이상세계를 바로 우리 인류의 미래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특히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인류는 세계 발전방향과 우주변화의 진리를 찾지 못하고 세기 말적인 불확실성과 말세적(末世的)심리상태에서 불안해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증산성사로부터 비롯된 대순사상(大巡思想)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인류에게 후천선경건설(後天仙境建設)의 우주화평시대를 예시하여 희망과 비전이 있는 미래사상으로서 또한 인류가 꿈꾸고 동경해온 이상세계의 새로운 전형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순사상으로 본 이상향인 道通眞境을 현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대순사상(大巡思想)의 기원과 의의를 살펴보고, 다음에는 도통진경의 실현과정과 그 방법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후천선경으로서의 도통진경과 그 모습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大巡思想의 起源과 意義

1) 大巡思想의 起源

대순사상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도탄이 극도에 다달았던 조선말엽인 1871년 전라도 교부군 우덕면 객망리 강씨가에서 인간의 모습을 빌어 강제한 강증산성사(姜甌山聖師)로 부터 비롯된다.

강증산성사는 원래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으로 원시의 모든 신성(神聖), 불(佛), 보살(菩薩)들의 호소와 간청에 의해 천하를 대순하다가 인간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의 천명(天命)과 신교(神敎)를 내렸으나 대도(大道)의 참 뜻을 능히 밝히지 못하므로 그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직접 인간으로 강세(降世)한 우주 만물의 주신(主神)임을 스스로 선포한 신인(神人)이다.

증산성사는 인간으로서의 생을 다하고 1909년 화천할 때까지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造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의 대순진리(大順眞理)에 의한 종교적 법리로 인간을 개조·승화시키면 정치적 세계평화와 사회적 지상천국이 자연히 실현되어 널리 창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⁸¹⁾를 선포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를 위한 우주변화와 세계변화 그리고 인간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작업으로서의 삼계공사(三界公事)·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하였다.

따라서 대순사상은 증산성사의 대순사상과 삼계공사에 관련된 방대하고도 심원한 진리이며 인류의 이상세계에 대한 열망을 종합화 하고 구체화한 사상체계라 할 수 있다.그러므로 대순사상은 구한말의 증산성사의 천계·지계·인계의 삼계를 널리구하는 진리 체계로부터 비롯되고 시작되는 것이다.

2) 大巡思想의 現代的 意義

대순사상은 진멸의 위기에 처한 세계와 인류를 널리 구하기 위한 증산성사의 고뇌에 찬 천하대순과 삼계공사와 관련된 진리이다. 이러한 대순사상을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이 볼수 있다.

대순사상의 우주관으로는 천하대순, 천지공사, 후천개벽사상이 있고 인생관으로는 인존평등, 해원상생, 보은협동사상이 있으며 사회관으로는 원시반본, 만국활계, 후천선경사상이 있다.

천하대순은 우주의 실체를 밝힌 것이고 천지공사는 우주의 개조를 밝힌 것이며 후천개벽은 우주의 진화를 밝힌 것이다.⁸²⁾ 또한 인존평등은 미래세계에서의 인간의 완성과 본성을 밝힌 것이고, 해원상생은 천·지·인 만물

81) 대순진리회 요람 참조

82)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사상의 현대적 이해」,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3, 147면

의 이상적 상호관계를 밝힌 것이며 보은협동은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원리를 밝힌 것이다. 그리고 원시반본은 우주와 세계변화의 운동원리를 드러낸 것이고 만국활계는 인간사회의 구제를 밝힌 것이며 후천선경은 천·지·인 개조에 의한 이상적 미래세계의 구현을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은 대순사상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도 본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며 특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대순사상에 내재된 우주·세계·인간의 변화·발전에 대한 수많은 메시지는 현대인류에게 다음과 같은 의의를 제시해주고 있다.

첫째, 대순사상은 상극에 지배되어있는 세계의 구조적 모순과 인류의 오랜 갈등의 역사를 근원적으로 청산하는 상생의 원리를 담고 있다. 이것은

- 선천에서는 인간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⁸³⁾

에서와 같이 증산성사가 인간세계의 구조적 모순과 갈등의 근원을 찾아내고, 이러한 세계의 참상을 근원적으로 해소키 위해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 부터 원을 풀어야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⁸⁴⁾고 한데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둘째, 대순사상은 참화가 끊이지 않는 상극적 세계구조를 영원한 화평이 실현되는 상생적 세계구조로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실천원리인 해원(解冤)의 법리를 담고 있다. 여기에 대해 증산성사는

「예로 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처결하면서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

83) 典經, 공사 1장 3절

84) 典經, 공사 1장 3절

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의 역사의 첫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리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⁸⁵⁾

고 하여 인류의 원의 근원과 그 해결원리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증산성사 스스로 실질적으로 천지간에 쌓인 모든 원을 풀어 가는 대역사(大役事)로써 해원공사(解冤公事)를 실행했다는 사실에서 해원의 법리가 단순한 이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실천원리로서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대순사상은 인류가 존재해온 현상세계를 초자연적, 자연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 측면 등 종합적이고도 총체적인 입장에서 진단한, 통합과학적 요소와 초과학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초자연적 측면에 대해서 증산성사는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일이 해결되느니라」⁸⁶⁾

라고 하여 인간세계가 신명세계와 유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두 세계가 유기적 입장에서 공존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간적으로 볼때 신명계의 변화와 인간계의 변화가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나타내며 인간세계의 문제가 신명세계의 문제로 부터 비롯됨을 밝힌 획기적인 사상이다.

그리고 자연적인 측면에서 볼때,

「天用雨露之薄則 必有萬方之怨
地用水土之博則 必有萬物之怨
人用德化之薄則 必有萬事之怨」⁸⁷⁾

85) 典經, 공사 3장 4절

86) 典經, 공사 1장 5절

위와 같은 증산성사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과 땅과 인간의 작용력이 세계와 만물과 모든 일에 고르게 미치지 못할 때 천지간에는 부정적 에너지가 발생하여 天·地·人이 자연과 인간이 안정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기(地氣)가 통일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생각이 연결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하고 투쟁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⁸⁷⁾

에서 보듯이 자연에 내재된 색다른 기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인간들이 제각기 다른 정신적·육체적 특성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이질적인 문화와 관습을 가져와 이에따른 인간의 반목쟁투가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증산성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관장(統制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갈래로 되리라.⁸⁸⁾

즉 이것은 고대(古代)에는 신도(神道)와 성인의 도(道)에 바탕을 둔 사람이 성인과 영웅의 도를 겸비하여 정치와 백성의 교육을 관장하여 무리가 없었으나, 어느 때부터인가 정치와 교육이 따로 이루어짐으로써 만인이 참된 법을 찾지 못하여 혼란을 겪어 왔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문화·종교·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경험의 전승(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 났도다.⁹⁰⁾

87) 典經, 행록 3장 44절

88) 典經, 공사 3장 5절

89) 典經, 교법 3장 26절

90) 典經, 교법 3장 23절

와 같이 각 민족의 고유한 경험이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역사적 토대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것이 민족과 국가간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을 야기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뒤돌아 볼 때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 것이다.

넷째, 대순사상은 세계발전의 원리를 통일의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 동안의 세계발전과 인류문명의 진보가 대립·분열·분화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 졌다면 앞으로의 인류발전은 조화·통일·통합의 원리에 의해 전개된다는 것이다. 즉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⁹¹⁾

에서 보듯이, 이것은 삼계가 서로 통하지 않고 분열되어 있음으로 해서 세상에 재앙이 생겼으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천계(天界)·지계(地界)·인계(人界)가 서로 통하지 않고 분열·분화된 것을 통일·통합시키는 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대순사상에서는 인류와 세계의 미래를 후천선경(後天仙境)이라고 하는 이상적 세계에서 찾고 있다. 이 후천선경 세계는 인간의 개별적 생의 결과에 따라 신의 은총으로 사후(死後)에 간다고 하는 '천당'이나 '극락'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다가오는 인류의 미래에서 실현될 지상에서의 선경세계(仙境世界)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이상과 같이 대순사상이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부여하는 중요한 의의는 그 동안 인류가 세계변화의 노정에서 품어 왔던 본질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증산성사의 원대한 천하대순과 삼계공사의 과정에서 비로소 제시되었다는 점과, 그 결과 인류의 미래가 '후천선경(後天仙境)'이라고 하는 이상적 세계로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다.

91) 典經, 예시 8절

2. 道通眞境의 실현과정과 그 방법

1) 道通眞境의 실현을 위한 기본 이념

인류 역사를 들여다 보면, 누구든지 인간의 진보·발전이라는 긍정적 측면 보다는 전쟁·가난·질병·천재지변 등의 부정적 측면의 역사를 많이 알게 되고 또한 인류가 항상 미래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며 생존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정신적, 물질적 안정을 가져다 줄 의지처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것은 문화(文化)와 관습(慣習) 및 지역적·시대적 특성에 따라 각기의 신(神)과 종교(宗教)를 창출하였으며, 그 신(神)과 종교(宗教)는 인간의 천부적 본성회복(本性回復)과 물리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주는 구원(救援)·구제(救濟)·구세(救世)의 상징으로 존속되어 왔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이 아닌 신앙을 전제로 한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구원·구제·구세의 실체인 신(神)은 실존하는 것이며, 그 실체가 설과 하는 구세의 실현성도 때가 되면 다가 올 미래지사(未來之事)가 되는 것이다.

도통진경의 실현을 위한 기본 이념은 바로 이러한 세계구제의 관점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은 증산성사의 廣求天下의 이념인 것이다. 다시말해 불과 백여년 전에 한국에서 탄강하여 天·地·人 삼계공사(三界公事) 즉, 우주변화의 대역사를 행한 증산성사(甌山聖師)의 법리(法理)는 인류가 대망해 오던 구세의 진리요, 광구천하의 메시지인 것이다.

대순사상에 있어서, 구세·구원·제도의 종교적 표현은 광구천하(廣救天下)로 대신할 수 있다. 여기서 광구천하는 천·지·인 삼계(三界)의 본질이요, 원리인 천도(天道)·지도(地道)·인도(人道)가 무너져 가야흐로 인류가 진멸할 지경에 처했으므로 이를 하느님·상제의 호생지덕(好生之德)으로서 널리 바로잡아 구제한다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증산성사는 인류구제의 결과로서의 후천선경의 건설을 위해 지역적·국가적·지구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 우주적 차원에서 첫째, 우주운행의 질서를 바로 잡고 둘째, 신명계와 인간계의 무도(無道)함으로 인한 병을 치유하며 세째, 우주의 항구적 화평

(和平)과 神·人의 상도회복(常道回復)을 도모하여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신천지를 건설함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증산성사의 광구천하에 대한 개요를 알 수 있는 기록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凍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年을 지내다가 ...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 ... 이제 천하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 ...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선경(後天仙境)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⁹²⁾

위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증산성사의 광구천하의 배경은 우주(宇宙), 즉 삼계(三界)에 누적되어온 더 이상 치유치 않으면 안될 병 때문이며, 그 병은 현대적으로 볼 때, 인류가 저질러 온 자연파괴, 인륜과 도덕성상실, 물질과 정신의 부조화 등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광구천하를 실행하는 구세의 주체는 하느님·상제로서의 증산성사 자신임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구천(九天)에 계신 상제께 모든 신성·불·보살이 신명과 인간에 쌓인 겁액을 풀어줄 것을 간청함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구천(九天)이라 함은 우주 최고위의 하늘세계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九라는 숫자가 자연수 중에서 최고의 수이며, 또한 동의보감에서도,

92) 典經, 교운 1장 9절, 예시 17절

구천(九天)이라함은 소우주인 인간의 인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위인 머리부분 중, 혼백이 거하는 니환궁이라는 혈이라고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하늘에 대한 관념에서도 구천은 하늘의 중심 중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선조들은 가장 높이 있는 하늘을 상원(上垣)이라 하고 이를 태미원(太微垣)이라고 칭했으며, 태미원 아래에 있는 하늘이 바로 하늘의 중심이 되는 중원(中垣)인 자미원(紫微垣)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미원의 아래에 있는 하늘은 천시원(天市垣)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중심이 되는 자미원에는 그 중심별로 북두칠성과 북극성(北極星)이 있다. 북극성은 북두칠성의 호위를 받고 있는데 일명 천추성(天樞星)이라고 불린다. 이 천추성을 별나라의 임금, 즉 천황대제(天皇大帝)라고도 하고 구천상제(九天上帝)라고도 한다. 그리하여 천추성을 중심으로 동쪽 자미원의 여덟개 별과 서쪽 자미원의 일곱개 별, 그리고 북두칠성 일곱개 별을 합쳐 하늘의 궁전, 즉 자미궁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미궁은 또 제후격인 28수(二十八宿)라는 경성(經星)의 호위를 받는다. 즉 28개의 별자리는 7개씩 네 부분으로 나뉘어 각기 하늘의 동서남북을 맡아 자미궁을 둘러싸고 있고, 28수는 28수대로 해와 달, 목, 화, 토, 금, 수성(水星)의 7개 별인 칠정(七政)의 호위를 받고 있다. 그래서 결국 온 하늘의 많고 많은 별이 북극성인 천추성을 겹겹이 호위하고 있는 셈인데, 이것은 바로 구천이 최고위의 하늘세계이며 구천상제가 하느님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道通眞境의 실현 과정과 그 방법

도통진경의 실현을 위해서 증산성사는 원과 한이 쌓여 인류가 진멸의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현하의 우주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후천선경으로서의 도통진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의 근원적 개조가 필요한 것이며 이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과 방법에 의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크게 보아서 첫째, 우주개조의 진행과정 및 도통진경 실현의 전체 과정으로서의 증산성사의 삼계대순(三界大巡) 둘째, 우주개조 및 도통진경의

실현 방법인 천지공사(天地公事) 세재, 도통진경시대의 사물의 행위 원리로서의 해원상생(解冤相生) 등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증산성사의 삼계대순에 의한 우주개조의 범위는 신명계와 인간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결국 신명과 인간은 이원적이면서도 통일되어 있는 물질 우주를 경영하는 심적 존재라고 볼 때, 대순사상에 의한 도통진경의 실현은 단순히 지구적 차원에서가 아닌 우주적 차원에서의 삼계도통(三界道通)인 것이며 삼계가 증산성사의 大巡眞理에 의해 통합되고 진리에 의해 道通에 이른다는 것이다.

(1) 道通眞境 실현의 전체과정인 三界大巡

우주는 현대과학으로도 그 본질과 구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며 성인의 법설로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존재이다. 그래서 우주의 실체에 대해서는 창조론과 변화론이 공존하고 있고 팽창론과 수축론이 공존하고 있다.

동양적 사고에서는 우주를 천지라고도 하며 천계(天界)·지계(地界)·인계(人界)를 합한 삼계(三界)라고도 한다. 그리고 三才라는 말도 천·지·인을 말하는데, 주역에서는 「천도가 있고, 지도가 있으며, 인도가 있다. 삼재는 천·지·인도이다」라고 하고, 중국 고사성어고(古事成語考)에서도 「천지는 사람과 함께 삼재라 한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우주는 삼계로 표현될 수 있으며 대순사상에서의 우주개조도 삼계대순의 과정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다시말해 증산성사의 삼계대순 속에는 우주개조의 대역사(大役事)인 천지공사가 실행되었으며, 해원상생의 대법리가 내재되어 있으며, 후천선경의 실상이 조각되어 있는 것이다.

증산성사의 삼계대순은 우주의 구조를 밝히는 것으로 『典經』을 통해서 본 그 경로는 다음과 같다.

① 구천 → ② 서양대법국 → ③ 삼계주력 → ④ 천하대순 → ⑤ 모악산 금산사 미륵불 → ⑥ 인세탄강 및 천지공사실행으로 대순진리선포 → ⑦ 금산사 미륵불 입어 → ⑧ 구천으로의 회귀

여기서 구천은 우주의 중심처로 최고위의 신격(神格)이 존재하는 곳이며,

②,④,⑤,⑦은 지계에서의 대순이며, ③은 구천을 떠난 천·지·인계의 대순이며, ⑥은 인계에서의 대순을 말한다.

앞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구천의 상제가 모든 신명의 간절한 요청으로 천지우주를 광구천하기 위해 신성(聖神)으로서, 천계탑에 내려와서 삼계를 두루 살피고 지계·인계를 대순하다가 무명의 약소민족이 사는 한반도 금산사 미륵불에 이르러 30년을 지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신(聖身)으로서 39년간의 제세시에 인류에게 천지공사라는 전무후무한 희망찬 작업을 예시하고 다시 성신(聖神)의 형태로 금산사 미륵불에 임했다가 구천으로 화천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증산성사의 삼계대순의 경로인 것이다. 우주는 삼계로 나눌 수 있지만 이 삼계는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고 그 연관성 때문에 어느 한쪽의 살핌으로서는 완전한 구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삼계대순에 의한 미래관은 우주전체의 신명계와 인간계를 두루 살핌으로써 모색된 종합적이고도 본원적인 우주개조론이요 이상세계론인 것이다.

(2) 宇宙改造 및 道通眞境의 실현방법인 天地公事

증산성사가 1901년부터 1909년까지 본격적으로 인간세계에서 펼쳤던 천지공사는 우주의 질서와 운행원리를 새롭게 조정한 것으로서 천지도수를 재편한 것이다. 천지도수는 우주만유가 운행·순환하는 질서요, 법칙이요, 그 때인 것이다.

증산성사는 여기에 관해 「선천(先天)에서는 인간·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度數)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神道)로 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度數)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人事)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 신도(神道)로서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神道)를 바로 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⁹³⁾ 라고 하였다.

여기서 볼 때, 천지공사는 천지도수(天地度數)를 정리하고 새 운수를 정하여 그것을 물샐 틈없이 굳건히 하면 때에 맞게 새로운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 도통진경의 실현이 우주질서에 부합되어 이루어 진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천지공사(天地公事)는 우주경영의 새 질서를 구축한 것이며 신세계 운영의 원리와 체계를 다시 세운 원대한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천지공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개인, 한 국가, 인간계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계의 결실은 신명계(神明界)의 조화가 있어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우주개조의 대망도 신도(神道)로 부터 풀어나가야 함을 증산성사는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도(天道)·지도(地道)·인도(人道)를 다시 세우는 일은 삼계(三界)의 일을 처결할 수 있는 삼계대권을 가지지 못하면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 증산성사는

「... 나는 삼계(三界)의 대권(大權)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⁹⁴⁾고 하여 실로 천지를 개조할 수 있는 권능과 권한을 가진 신성한 신격(神格)으로서의 삼제임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천지공사는 말뿐인 이론이나 한낱 사상이 아닌 구체적이고도 실행가능한 말 그대로의 천지의 개조작업인 것이다. 증산성사는 제세시에 많은 천지공사를 처결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분명한 목적과 내용을 알 수 있는 공사를 보면 신명공사(神明公事), 개벽공사(開闢公事), 해원공사(解冤公事), 명부공사(冥府公事), 운회공사(運會公事), 교운공사(敎運公事), 조선국공사(朝鮮國公事), 의통공사(醫統公事), 도통공사(道通公事), 인존공사(人尊公事) 등이 있다.

결국 천지공사(天地公事)는 진멸지경에 빠진 삼계를 해원의 원리로 풀어내고 과거와는 달리 인간이 천지운행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인존의 세계를

93) 典經, 공사 1장 3절

94) 典經, 공사 1장 2절

구현하여 인간 중심의 후천선경인 도통진경의 시대를 가능케한 원동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3)道通眞境社會에서의 萬物의 行爲原理인 解冤相生

천지에 존재하는 신명과 인간은 본래 평화적·상생적인 관계에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도리(道理)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나 천하에 원과 한이 맺히게 됨으로써 삼계가 참혹하게 변하게 된 것으로 증산성사는 지적하였다.

증산성사는 원의 뿌리와 포한의 세상이 된 배경을

역사의 첫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⁹⁵⁾

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증산성사의 해원공사(解冤公事)는 크게 신명계(神明界) 해원, 인간계(人間界) 해원, 지계(地界) 해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신명계 해원을 보면, 동학신명 해원, 만고역신 해원, 중천신 해원에 대한 공사 등에서 집단적·개별적으로 신명의 원을 풀어주고 있다. 또한 인간계 해원에서는 천한 사람에게 먼저 교를 전하며, 여성을 해원시키고, 무명의 조선을 상등국으로 끌어 올리는 공사를 하는 등 그 동안 세상에서 고통받고 한이 맺힌 인간들을 위주로 해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계 해원은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들어야 한다.⁹⁶⁾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⁹⁷⁾

95) 典經, 공사 3장 4절

96) 典經, 교법 1장 62절

97) 典經, 교법 1장 67절

는 말에서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다.

삼계에 가득 찬 원(冤)을 원리적으로 그 뿌리부터 풀어내는 증산성사의 해원사상은 그 동안 사랑과 자비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인간과 신명의 대병을 근원적으로 구제하는 미증유의 법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해원은 인간사회와 신명세계를 근원적으로 정화시키는 원리이며, 상생은 인간사회와 신명세계에서 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신세계의 실천윤리요 강령인 것이다.

따라서 해원상생의 원리에서 보면, 선천(先天)의 상극시대(相克時代)는 원(冤)과 한(恨)이 쌓였던 시대이고 후천 상생시대는 원과 한이 근원적으로 사라져, 인류가 화합하고 신명이 조화되어 삼계가 안정되는 우주화평시대(宇宙和平時代)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대가 바로 삼계가 개조된 후천선경세계(後天仙境世界)인 것이다.

3. 後天仙境으로서의 道通眞境과 그 모습

대순사상으로 본 후천선경인 도통진경의 실상은 인류가 꿈꾸어 온 이상세계로서 만법통일시대(萬法統一時代), 무위이화(無爲而化)로 다스려지는 조화시대(造化時代), 인간이 위주가 되는 인존시대(人尊時代), 시방세계에 통달할 수 있는 도통시대(道通時代), 水·火·風의 삼재가 없는 무재해시대(無災害時代), 천지가 개벽하여 결실을 맺는 천지성공시대(天地成功時代)인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도통진경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정치적 안정과 만인평등이 실현된 人尊의 시대

후천선경세계를 예시하는 내용을 몇가지 관점에서 간추려 보면 우선 정치적으로 볼 때, 후천선경세계는 인간의 존엄성이 극대화되는 人尊의 시대가 되고 만인이 평등한 무계급사회가 실현되어 인간상호간의 사회적 관계가 근본적으로 안정되고 정치(政治)와 교화(教化)를 담당하는 계층도 성웅을 겸비한 도통군자(道通君子)⁹⁸⁾가 되므로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 혼란이 근원적으로

로 제거된 세계가 된다.

다음의 典經 내용을 보면 우선 도통진경의 시대에는 중국의 대동사회에서 보았듯이 사람간의 각종 차별이 없어지는 평등과 무계급의 사회가 이루어진다.

우리의 일은 남을 잘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되고 남은 것만 차지 하여도 되나니 진 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느니라.99)

지금은 해원시대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적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100)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김 형렬은 자기 머슴 지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대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존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은 낮추시옵소서」 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은 낮추옵소서」 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운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주셨도다.101)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 하였으니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돌아오리라.102)

98) 典經, 교운 1장 34절을 통해 보면 「공자(孔子)는 72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500명을 통케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 주리니 상재(上才)는 7일이요, 중재(中才)는 14일이요, 하재(下才)는 21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上等)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中等)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下等)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에서 도통군자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99) 典經, 교법 1장 2절

100) 典經, 교법 1장 9절

101) 典經, 교법 1장 10절

102) 典經, 교법 1장 67절

후천에는 계급이 많지 아니하나 두 계급이 있으리라. 그러나 식록은 고르리니 만일 급이 낮고 먹기까지 고르지 못하면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오(103)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도통진경의 시대에는 그 동안 인간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어 왔던 신분적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된다. 그리고 계급은 신분적인 차별에 따른 계급이 아닌 사회를 운영해갈 도통군자와 일반사람들로 구분되는 직분에 의한 구분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동안 남녀간의 차별에 의해서 야기되었던 많은 문제가 후천선경에는 없어지고 남녀동권의 시대로 변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제께서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퇴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 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고 박 공우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때 공우가 상제를 모시고 태인읍을 지나는데 두 노파가 상제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기에 상제께서 길을 비켜 외면하셨도다.(104)

후천에서는 그 닭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 여비의 관습을 무너지리라.(105)

상제께서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젓(乳)샘이라」고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 이천봉을 응기하여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는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상유 도창 증유 태인 하유 대각 (上有道昌中有泰仁不有大覺)」이라고 말씀하셨도다.(106)

후천선경에서는 위에서 보았듯이 모든 차별과 차등이 사라짐으로써 인간이 가장 존엄한 존재로서 자리를 잡으며 그 동안 선천에서는 신명에게 의탁하여 일을 이루었으나 후천에서는 인간에 의해 일이 이루어지는 인간중심시대가 된다. 이것은 곧 앞으로의 세계는 신중심의 세계에서 인간중심의 세계로 변화함을 말하며 신이 인간에게 의탁하는 인존의 시대가 도래함을 예시

103) 典經 교법 2장 58절

104) 典經, 공사 1장 23절

105) 典經, 교법 1장 68절

106) 典經, 예시 45절

하는 것이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¹⁰⁷⁾

선천에서는 모사(謀事)는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¹⁰⁸⁾

따라서 후천선경세계는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인간중심의 인존시대(人尊時代)가 되는 것이다.

(2) 경제적 안정과 경제정의가 실현된 豊饒의 세계

경제적 측면에서 후천선경세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사회가 된다. 경제적 안정은 물질의 풍요에서 비롯되며 그 풍요가 국가나 개인간에 고르게 적용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상을 얻으며 궤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¹⁰⁹⁾

후천에서는 종자를 한번 심으면 해마다 뿌리에서 새 싹이 돌아 추수하게 되고 땅도 가꾸지 않아도 옥토가 되리라. 이것은 땅을 석자 세치 태우는 까닭이니라.¹¹⁰⁾

후천선경에서는 고도의 생산능력이 보장되는 사회로 농업, 공업부문에서는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생산물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는 고도의 과학세계가 되며 상업부문에서는 이익과 이윤을 위한 활동이 아닌 필요한 물자를 유통하는 유통활동이 위주가 되는 세계가 될 것으로 예시되고 있다.

107) 典經, 교법 2장 56절

108) 典經, 교법 3장 35절

109) 典經, 예시 80절

110) 典經, 교법 3장 41절

선천에서는 눈이 어두워서 돈이 불의한 사람을 따랐으나 이 뒤로는 그 눈을 밝게 하여 선한 사람을 따르게 하리라.¹¹¹⁾

돈이란 것은 순환지리로 생겨 쓰는 물건이니라. 억지로 구하여 쓸 것은 못되나니 백년 탐물(百年貪物)이 일조건(一朝塵)이라.¹¹²⁾

위에서 보듯이 인간의 수명이 지금보다는 훨씬 늘어나고 경제적으로는 오늘날과 같이 희소(稀少)한 자원(資源)을 경쟁의 원리에 의하여 분배하는 체제가 아니라 충분한 자원을 고르게 분배하는 경제적 평등사회(平等社會)가 구현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부(富)의 획득은 건전하고 정직하며 깨끗한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완전한 경제적 정의구현시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력의 증대를 위해서, 개별인간·집단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을 하는 오늘날의 경제행태(經濟行態)는 미래사회에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3) 사회·문화·종교적 갈등이 해소된 統一의 시대

사회·문화·종교적(社會文化的) 측면에서의 후천선경세계를 증산성사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우선 인간의 언어(言語)·문화(文化)·종교(宗教)·문명(文明) 등 모든 영역에서 통일과 통합현상이 일어나 현재와 같은 인간간의 언어·문화·종교·문명의 차이로 인한 대립·갈등·오해·전쟁이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후천선경세계는 사회문화적 통합이 완성된 만법귀일(萬法歸一)의 일체화된 사회가 되는 것이다.

특히 증산성사는 후천선경건설(後天仙境建設)을 위한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많이 처결하였는데, 그 중에는 지기의 통일, 문화의 통일, 종교의 통일, 선천에서의 반목투쟁을 조장해 왔던 분열된 기운을 합일시키는 정치와 교화의 통일, 언어의 통일 등 통일공사(統一公事)가 많이 등장한다. 이것은 우리 인류가 앞으로 우주의 항구적 화평과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향해야 될

111) 典經, 교법 1장 63절

112) 典經, 교법 1장 64절

세계적 목표요 방향인 것이다.

그렇다면 후천선경에서는 왜 오늘날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의 다양성을 통합내지는 통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統一의 必要性이 무엇인가를 봄으로서 알 수가 있다.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天地人)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¹¹³⁾

통일의 필요성은, 과거 선천의 세계가 서로 다른 상이한 요소로 인해 서로 통하지 못한 결과 상호간의 반목과 쟁투가 일어났으며 이것이 결국에는 오늘날의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인간간의 대립을 초래해 참혹한 현상이 끊임 없이 일어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후천선경에서의 통일의 내용을 天界의 통일, 地界의 통일, 人界의 통일로 대별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天(神明界의 統一)과 관련된 내용을 典經에서 찾아보면,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일이 해결되느니라.¹¹⁴⁾

조선명부(朝鮮冥府)를 전 명숙(全明淑)으로, 청국명부(淸國冥府)를 김일부(金一夫)로, 일본명부(日本冥府)를 최수운(崔水雲)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 하룻밤 사이에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¹¹⁵⁾

등이 있는데 이것은 신명계의 혼란이 결국 인간세계의 혼란으로 이어졌다는 음양적 세계관에 기초한 것으로 결국 명부공사를 통하여 신명계가 통일 되면 자연적으로 인간계도 조화적으로 통합되어 대립의 요소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113) 典經, 예시 8절

114) 典經, 공사 1장 5절

115) 典經, 공사 1장 7절

地界의 통일은 땅에 내재된 地氣의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써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반목 쟁투하느니라.116)

상제께서 무더운 여름날에 신방축 공사를 보시고, 지기를 뽑으셨도다. 종도들이 상제께서 쓰신 많은 글을 태인 신방축의 대장간에 가서 풍긋 불에 태웠나니라. 며칠 후에 상제께서 갑철을 전주 김 병욱에게 보내여 세상의 소문을 듣고 오게 하셨도다. 갑철이 병욱으로부터 일본 신호(神戶)에 큰 화재가 났다는 소문을 보도를 듣고 돌아와서 그대로 상제께 아뢰이니 상제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일본이 지기가 강렬하므로 그 민족성이 탐욕과 침략성이 강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일삼느니라. 옛적부터 우리나라는 그들의 침해를 받아왔노라. 이제 그 지기를 뽑아야 저희 살림이 분주하게 되어 남을 넘보는 겨를이 없으리라. 그러면 이 강산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전날 신방축 공사를 보았음은 신호(神戶)와 어음이 같음을 취함이었으니 이제 신호에 큰 불이 일어난 것은 앞으로 그 지기가 뽑힐 징조이로다」 고 하셨다.117)

위의 내용은 지기에 따라서 그 곳에 사는 민족의 민족성이나 개인의 기질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기의 통일과 순화가 바로 사람들의 기질을 통일하고 순화시킴으로써 후천선경에서는 기질의 차이에 따른 대립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항구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人界(言語·文化·宗教·思想) 統一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천지에 수기(水氣)가 돌 때 만국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통어(通語)하게 되나니 수기가 돌 때에 와직끈 소리가 나리라.118)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文化)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쉼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119)

116) 典經, 공사 3장 5절

117) 典經, 공사 3장 31절

118) 典經, 예시 51절

119) 典經, 예시 12절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가지 도(道) 만을 따로 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후천에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도법을 합(合)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리라.¹²⁰⁾

지나간 임진란을 최 풍헌(崔風憲)이 맡았으면 사물에 불과하고, 진묵(震默)이 당하였으면 석달이 넘지 않고, 송 구봉(宋龜峰)이 맡았으면 여덟 달에 평란하였으리라. 이것은 다만 선·불·유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며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¹²¹⁾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 다른 문화를 이룩하여오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이제 민족들의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걷고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셨도다.¹²²⁾

동학 신자는 최 수운의 갱생을 기다리고, 불교 신자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예수 신자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나, 누구 한 사람만 오면 다 저의 스승이라 따르리라고 하셨도다.¹²³⁾

선도(先導)와 불도(佛道)와 유도(儒道)와 서도(西道)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에 바탕이 되었나니 이제 최 수운(崔水雲)을 선도(仙道)의 종장(宗長)으로, 주회암(朱晦庵)을 유교(儒教)의 종장(宗長)으로, 이마두(利瑪竇)를 서도(西道)의 종장(宗長)으로 각각 세우노라.¹²⁴⁾

후천선경에서는 결국 언어, 문화, 종교, 사상의 통일이 일어나 선천에서의 언어의 다름, 문화의 차이, 종교의 갈등, 사상의 차이가 극복되고 이것이 바로 현실의 대립, 갈등, 오해, 전쟁을 종식시킴으로서 도통진경은 진리로 통일된 완전한 이상세계가 되는 것이다.

120) 典經, 예시 13절

121) 典經, 예시 73절

122) 典經, 교법 3장 23절

123) 典經, 예시 79절

124) 典經, 교운 1장 65절

(4) 근본의 질서로 회귀되는 原始返本의 사회

후천선경에서는 그 동안 왜곡되어진 인간의 도덕과 도리 뿐만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 근원까지도 바로 잡히는 원시반본의 시대가 된다고 한다. 이것은 인간세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과거에나 지금에나 동일하게 요구되는 질서나 체계가 시대의 추이에 따라 변형되고 왜곡됨으로 해서 파생되었던 인류의 문제를 근원의 세계로 되돌림으로써 해결하자는 것으로,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될 질서나 체계가 도통진경의 세계에서는 그대로 유지됨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세상에 성으로는 풍(風)성이 먼저 있었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면 다만 풍채(風采)·풍신(風身)·풍골(風骨) 등으로 몸이 생김새의 칭호만으로 남아올 뿐이요. 그다음은 강(姜)성이 나왔으니 곧 원시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개혁시대를 당하여 원시반본이 되므로 강(姜)성이 일을 맡게 되었나니라.¹²⁵⁾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統制管掌)하였으되 중고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元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¹²⁶⁾

원시반본하는 때라 혈통줄이 바로 잡혀 환부역조와 환골하는 자는 다죽으리라.¹²⁷⁾

(5) 道術·道法·超科學이 발현된 恒久的 平和世界

도통진경의 후천세계에서는 삼계가 다 대순진리로서 도통이 된 세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 때에는 도법에 의해 세상이 조화되며 도술에 의해 만사가 다 이루어 지며 초과학적 문명이기에 의해 사람들의 생활이 완전히 자유로워 지는, 그래서 오직 사람들이 정신적 진보와 道에 합일 되고자 하는 차원 높은 생활의식이 지배하는 항구적 평화세계 된다고 한다.

125) 典經, 행록 4장 17절

126) 典經, 교법 3장 26절

127) 典經, 교법 3장 42절

이에 대해 증산성사는,

용력술을 배우지 말지어다. 기차와 운선으로 백만근을 운반하고 축지술을 배우지 말라 운거(雲車)를 타고 바람을 제어하여 만리 길을 경각에 왕래하리라.¹²⁸⁾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¹²⁹⁾

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후천선경으로서의 도통진경시대의 모습외에도 사실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증산성사가 구현하려고 한 이상세계는 먼저 살펴본 다양한 이상세계에 대한 사유체계의 여러 가지 요소가 모두 용해되어 있고 훨씬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체계는 사람이 믿고 신앙할 수 있는 종교적 진리로 승화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미래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로 제시되고 있다는데에 그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증산성사에 의한 도통진경은 실현되지 않는 상상속의 이상세계론이 아닌 인간이 지향하고 찾아가야 할 궁극적 세계에 대한 혁신적 이상세계이며 무엇보다도 현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바를 새롭게 제시하는 현실적 이상세계인 것이다.

결국 대순사상에서의 후천선경세계는 그 동안 인류가 걸어온 험한 세상과는 질적·구조적으로 다른 세계이며, 물질과 정신이 조화되고 신과 인간이 조화되며,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음과 양의 세계가 합덕되며, 항구적 평화가 실현된 신인류와 신우주가 구현된 이상향(理想鄉)의 세계인 것이다.

이상 간략하나마 역사상에 제기였던 유토피아 추구의 양상을 몇 가지로

128) 典經, 예시 75절

129) 典經, 예시 81절

대별하여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도교·유교등 사상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양태로 이상사회를 이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유토피아의 형상을 통해 당대 민중들의 원망과 이상을 담아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합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뒷절에서 다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康有爲, 『大同書』 민음사, 1991
- 국어대사전, 교육도서, 1988
- 金錫夏, 『한국문학의 낙원사상연구』 日新社, 1973
- 김종희, 『한국소설의 낙원의식 연구』 문학아카데미, 1990
- 金湘坤, 「理想郷 靑鶴洞에 대한 典據」 『漢文學』 2집, 전주대 한문학연구회, 1984
- 金杜珍, 「弓裔의 彌勤世界」 『韓國史 市民講座』 제10집, 일조각, 1992
- 김왕수, 「이상사회에 관한 한국인의 전통적 관념」 『인문과학』 72,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94
- 金宗直, 「頭流記行錄」 『국역 동문서』 11권, 민족문화추진회, 1982
- 김용범, 「영웅소설에 나타난 도교사상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88
- 金時習 著 / 李載浩 譯, 「萬福寺樗蒲記」 『金鰲神話』 乙酉文化史
- 金錫夏, 『韓國文學의 樂園思想 研究』 日新社, 1973
- 金時習 著 / 李載浩 譯, 「龍宮赴宴錄」 『金鰲新話』 乙酉文化史, 1969
- 金恩石, 「이어도 : 理想과 絶望의 世界」 『韓國學論集』 第12輯,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7
- 대순진리회 요람
-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사상의 현대적 이해』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3
- 三浦國雄, 『洞天福地小論』 ‘東方宗教’, 1983
- 신일철, 「崔濟愚의 後天開闢의 理想社會像」 일신사, 1973
- 孫晉泰, 『韓國民族說話의 研究』 乙酉文化史, 1954
- 李仁老, 『破閑集』 卷上,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역주본, 1992
- 이종은, 「韓國 小說上의 道敎思想 研究」 『道敎와 韓國思想』 아세아문화사, 1987
- 李成珪, 「中國 大同思想의 歷史的 展開와 그 特徵」 『韓國史 市民講座』 제10집, 일조각, 1992
- 李重煥 著 / 李翼成 譯, 『擇里志』 을유문화사, 1994
- 李佑成 / 임형택 編譯, 『李朝漢文短編集』 上, 일조각, 1983

- 장병길, 「한국신흥종교사」 『한국문화사대계』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70
- 鄭奭鍾, 「朝鮮後期 理想郷 追求傾向과 三峰島」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下, 창작과 비평사, 1990
- 鄭在書, 「高句麗 壁畫의 神話的 題材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3회 이화여대 인문과학대학 교수학술제 발표 논문요지집, 1995
- 정병욱 / 이승욱교주, 「구운몽」 『한국고전문학대계』 민중서관, 1973
- 정석중, 「朝鮮後期 理想郷, 追求傾向과 三峰島」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下, 창작과 비평사, 1990
- 조석래, 「水中仙界의 憧憬」 『국어교육연구』 1호, 전국교육대학국어연구회, 1972
- 최동희, 『동학의 사상과 운동』 성대출판부, 1980
- 崔惠實, 「이어도에 나타나는 유토피아의 空間性과 時間性」 『國語教育』 제 11진, 국어교육연구회, 1989
- 칼 만하임 / 황성모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삼성출판사, 1983
- 한국도교사상연구회, 「韓國文學에 타난 유토피아 意識研究」 『道敎의 韓國的 變容』 아세아문화사, 1987
- 황선명 외, 『한국근대민중종교사상』 학민사, 1981
- 洪萬宗 著 / 李錫浩 譯, 『海東異蹟』 을유문화사, 1982